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7일 주지사 플랙홀에서 열린 아시안어메리칸 유산의 달 선포식에서 힐리 주지사(가운데)가 선언장에 서명한 후 들어보이고 있다. 뒤로는 미셸우 보스톤시장, 태키 첸, 에리카 아우터호벤, 바나 하워드, 도날드 왕 의원 등이 보인다

힐리 주지사, "아시안이 잘 살아야 매사추세츠도 잘산다"

주지사, 아시안어메리칸 유산의 달 선언 서명 행사
"아시안 커뮤니티는 다양하며 강력한 커뮤니티"
텍사스 총격으로 사망한 한국인 희생가족도 거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17일 아시안어메리칸 유산의 달을 맞아 주청사에서 주내 주요 고위 공무원, 아시안계 의원들, 그리고 주요 아시안계 인사 등을 초청해 아시안어메리칸 유산의 달 선언 서명식을 갖고 아시안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힐리 주지사는 "미국 센서스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 아시안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주내 인구 7.4%를 차지하며 이 기간 동안에 무려 48%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강한 커뮤니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안들은 아주 다양하게 중국계, 베트남계, 일본계, ▶▶4면으로 계속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 하버드서 열려

6월 하버드 샌더스씨어터에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우상원 객원기자 = 주보스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가 오는 6월 16일 (금) 오후 7:30에 유서 깊은 하버드대학교의 샌더스 극장에서 공연된다. 샌더스 극장은 1875년에 지어진 1,000석 규모의 극장으로 음향이 훌륭하고 규모가 커서 대형 강이나 유명 인사들의 공연 또는 행사가 많이 열리는 장소이고 널리 알려진 랜드마크이다.

Beyond Borders(경계를 넘어서)라는 제목 아래 '미국인 작곡가의 한국 음악 다이아리' 라는 부제가 붙은 이 음악회는 현재 버클리 음악대학의 작곡과 과장인 리처드 캐릭(Richard Carrick) 교수가 기획하였다. 그는 피리에서 태어난 프랑스-알제리-영국계 혈통의 미국 작곡가이다. 다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탐구와 동서양을 넘나드는 경 ▶▶6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어린이 글짓기 대회 120명 참가 실력발휘

5월 27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시상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5월 27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시상식

이날 글짓기와 손글씨 대회를 통해 각학년 대상을 포함 총 70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들의 시상식은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한다.

이날 글짓기와 손글씨 대회를 통해 각학년 대상을 포함 총 70명의 학생이 수상했으며 이들의 시상식은 5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개최한다.

협의회 김소희 총무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에서 남일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근 4년 만에 갖는 대면 학생 행사여서 더욱 감동적이다.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해 주신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가한 학생들 모두 최선을 다해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보스톤 총영사관 윤성근 교육영사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행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잘 표현된 언어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른도 쉽지 않은 글짓기이고 요즘 유행하는 크리에이터라는 단어와 직업이 있는데 글을 짓는 것 역시 비슷한 활동이라고 보며 학교 및 가정에서의 학습을 통해 생각을 잘 정리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2세들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심사 및 감독위원 소개에 이어 박

현아, 이정설 임원이 각학년별 글짓기 제목을 뽑는 순서를 가졌고 학생들은 각학년별 교실로 이동해 대회를 시작했다.

협의회는 행사 2일전 저녁 줌미팅을 통해 이번 대회의 글짓기 및 손글씨 부문 심사와 감독을 맡은 각 학교 교사에 대한 설명회를 미리 개최해 이로 인해 과거처럼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보였다.

2023년도 뉴잉글랜드지역 글짓기 및 손글씨 대회 수상자 명단은 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된다. 시상식은 27일(토) 개최되는 2023년도 어린이사생대회 식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갖는다.



2023학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자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최



(2023년 5월 13일 개최 * 대회 시상식은 5월 27일(토요일) 오후 1시부터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에서! * 주소: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전체대상-고학년(6~12학년) 부문	노 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목: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전체대상-저학년(Kinder~5학년) 부문	김수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목: 재미있게 읽은 책			
특별상(대상-전년도 전체대상 수상)	노 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목: 내기 가장 갖고 싶은 것, 강아지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대상
Kinder	김리안(뉴잉글랜드)	조은지(뉴잉글랜드)			
1학년	한다연(뉴잉글랜드)	홍리은(뉴잉글랜드)			
2학년	이유진(뉴잉글랜드)	지영재(뉴잉글랜드)	조은(뉴잉글랜드)	노희진(에머스트)	문종주(뉴잉글랜드)
3학년	황 준(북부보스톤)	조혜나(뉴잉글랜드)	이예나(보스톤천주교)	안윤기(뉴잉글랜드)	박하민(에머스트)
4학년	조민수(뉴잉글랜드)	김민아(뉴잉글랜드)	오아은(뉴잉글랜드)	조유백(뉴잉글랜드)	김 훈(뉴잉글랜드)
5학년	신아래(내수아침마을)	노희도(에머스트)	박은리(보스톤천주교)	이선유(뉴잉글랜드)	민현기(뉴잉글랜드)
6학년	나연지(뉴잉글랜드)	허아래(뉴잉글랜드)	박은진(뉴잉글랜드)	박수민(에머스트)	박은서(내수아침마을)
7학년	김아연(뉴잉글랜드)	이연우(보스톤천주교)	오유진(뉴잉글랜드)	조혜성(뉴잉글랜드)	오유백(뉴잉글랜드)
8학년	민유진(뉴잉글랜드)	김주현(뉴잉글랜드)	박은하(내수아침마을)	김종현(뉴잉글랜드)	황 준(북부보스톤)
9학년	이세진(내수아침마을)	김주현(뉴잉글랜드)	김다연(뉴잉글랜드)	남문우(뉴잉글랜드)	김민아(뉴잉글랜드)
10학년	서예린(뉴잉글랜드)	김예린(뉴잉글랜드)	고소민(뉴잉글랜드)	김민우(뉴잉글랜드)	김민우(뉴잉글랜드)
11학년	민유진(뉴잉글랜드)	김효린(내수아침마을)	최아름(뉴스틴한국)	이지훈(뉴잉글랜드)	이지훈(뉴잉글랜드)

서울설령탕
SEOUL SEOLMY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 + 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첫 공식 연주회 5월 20일 개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국전통예술원 (Boston Academy of Korean Traditional Arts) 2023년 봄학기 과정을 마무리하며 뉴튼에 위치한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5월 20일 오후 12시 첫 공식 연주회를 선보인다

김경선(가야금), 김유나(아쟁), 이한나(전통무용), 정재니(해금) 교사 등의 지도로 9주 동안 교육을 받은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이날 연주회에서 가야금과 아쟁 산조와 민요, 가야금 창작곡, 해금 앙상블 및 전통무용 등 다양한 구성과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봄 학기에 새로 개설된 전통타악반 학생들과 박지혜 교사가 임실필봉농악 가락과 설장구를 연주해 흥겨운 한국 장단의 멋을 나눈다.

디렉터 조미나씨는 “현재 한국 전통예술원 학생들은 만 6세 어린이부터 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직업과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온 이들이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라는 연결점으로 만나 매주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회에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적처럼 느껴진 한 학기였다.” 라고 전했다.



조씨는 또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윤윤석류 아쟁 산조, 황병기 작곡 ‘침향무’ (가야금), 임실필봉농악 가락 및 설장구, 및 한량무 등으로 구성된 수준 높은 학생들의 공연과 교사진들의 연주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무대를 꾸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고 말했다.

한국전통예술원은 2022년 10월 보스턴 한미예술협회가 서머빌 커뮤니티 침례교회, 국제 국악재즈연구소 등 여러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창단한 전통 예술 교육원이다. 전통

예술원 구성원들은 내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것 이외에, 보스턴 미술관 음력설 축제, 뉴튼 음력설 축제, 렉싱턴 ‘세계의 춤(Dance Around the World)’ 축제 등 다양한 문화 예술 축제 및 행사에 참가하여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전통예술원 봄학기 연주회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주소는 130 Wheeler Rd., Newton, MA이다.

(<https://www.igji.org/bakta.html>), bostonkorean@hotmail.com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이세라 학생 지역 대표 선발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편집부 = 제 18회 나의 꿈 말하기 NE 지역대표 선발 대회에서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의 이세라 학생이 지역 대표로 선발돼 14개 지역 대표가 줌미팅으로 갖는 결선에 참가하게 된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13일 대면으로 진행된 ‘제 18회 나의 꿈 말하기 NE지역 대표 선발 행사’ 에는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이세라,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안유찬, 우스터 한국학교 최하은 학생이 참가했다.

글짓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인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안유찬 학생이

“나의 꿈” 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두 번째는 우스터 한국학교 최하은 학생이 같은 “나의 꿈” 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의 이세라 학생은 “나의 꿈은 뽀로로 반창고” 주제로 무대에 섰다.

협의회 윤미아 직전 이사장, 애머스트 한국학교 조찬희 교사, 보스턴 천주교 한국학교 권인호 교사가 심사를 맡아 최종적으로 이세라 학생을 대표로 선발했다.

심사위원 대표로 조찬희 교사는 “2세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 며 심사 소감을 말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힐리 주지사, "아시안이 잘 살아야 매사추세츠도 잘산다"

▶▶1면에 이어서

인도계, 그리고 코리안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상공인은 물론, 학계, 대학 등 다양한 주내 사회 곳곳에서 기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주지사는 팬데믹 동안 아시안 혐오범죄가 미국 전역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급증했던 것을 지적하며 "특정 커뮤니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전체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게 된다. 이런 행동은 많은 과장을 몰고 온다. 텍사스의 대규모 총격사건은 비극 한국계 조씨 패밀리가 사망한 것은 비극이며 이들이 이 지역과 연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주지사는 "주내 아시안 커뮤니티가 잘 살게 되면 매사추세츠 전체가 잘 살게 될 것" 이라며 아시안을 격려했다.

미셸우 보스턴 시장은 "이민자 가정의 큰 딸로서 자라나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됐으며 아시안으로서 정체성은 학교에서 여러가지 모순적인 감정이었다. 학교에서 인비저블, 스테레오타입의 대우를 받았는

데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 드러났다" 그런데 보스턴에 와서 차이타운에 왔을 때 "안도감과 소속감을 느꼈다" 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한번도 선출직을 꿈꿔보지 않았고 만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장 선거를 권유했을 때 '정말 두려웠다' 며 이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고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선출된 리더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리더들을 다음 세대들에게 (롤모델로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으로서 자신이 겪었던 것을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겪지 않고 정계, 재계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미셸우 시장의 마음이 전달되는 말이었다.

이날 서명식에는 주 경제개발부장관 이본 하오, 공중안전보안행정청 (Executive Office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EOPSS)의 법 집행 차관 지나권 등의 행정부 내 아시안계 고위직들과 택키 찬, 에리카 아우터호벤, 도날드 왕, 마나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좌), 미셸우 보스턴 시장



하워드 의원 등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아시안들이 참여했다.

한인들 참가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샘현(Sam Hyun) 보스턴시 연방정부관련업무 디렉터, 사라 김 MA 재무부 총괄법률고문, 린다 챔피언 변호사, 장진섭 OKTA 회장, 그레이스리 M&T 은행 사장 등이었다. 영사관에서는 흥순복 부총영

사가 참여했다.

주요 인사들의 환영사 등이 마무리되면서 주지사는 미셸우 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시안어메리칸 유산의 달' 을 선포장에 서명했다.

행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지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본 하오 경제개발부장관이 이미 경제 개발을 잘 이끌고 있는 리더이며 각 커뮤니티와 경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하고 "아시안어메리칸커미션을 비롯해 다양한 부서와 채널을 통해 크고 작은 경제 주체들 전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고 말했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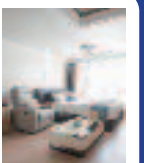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트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GLOBE MAGAZINE

I struggled with my Korean-American name. Now I realize it was a gift.

Our names point to where we come from. Mine took me on a journey from Boston to Seoul and back.



한국이름의 소중함을 다룬 이야기 보스턴 글로브 홈 메인기사로

보스턴글로브 기자, 한국이름으로 자신의 경험 자기서술형 기사로 다뤄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턴글로브에 재직중인 김영진(Eric Young-Jin Kim) 기자가 자신의 이름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추후 성장하면서 이름의 소중함을 느끼는 개인 에세이를 작성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보스턴글로브 온라인 판은 16일 김영진 기자의 기사를 홈페이지 주요 기사로 다뤄 소수민족이 이름을 통해 겪게 되는 아픔과 승화하는 과정을 소개해 상대방 이름에 대한 정확한 호칭과 발음의 중요성을 알렸다. 김 기자는 어린시절 학교에서 통과의례처럼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많은 부끄러

움을 느꼈던 것을 고백했다. 또한 여러가지 잘못된 이름으로 불렸던 것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아빠가 청소년시절 미국으로 이민 온 1.5세였으며 많은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후 아들에게는 에릭(Eric)이란 이름을 붙여 쉽게 불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고집했다. 김 기자는 학교에서 이름을 불릴 때 자신이 상대방에 의해 가치판단이 되고 있음을 늘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연구에서 이름으로부터 상대방의 성격, 인종, 인격, 그리고 성공정도를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도 강조한다.

2011년 한 연구에서 이름의 발음이 다른 사람의 첫인상에 영향을 주는가를 조사했다. 연구진들은 발음하기 쉬운 이름의 사람을 더 좋아하며 사회적인 승진도 쉽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기자는 밝혔다. 2005년 영어강사로 한국에 가게 된 김 기자는 한국 사람들이 영진이란 이름을 간직한 것에 대해 고맙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리아헤럴드에서 입사해서 9년간 일한 후 2015년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는 아내와 그리고 아버지의 동의 하에 자신이 가지고 싶었던 이름 주노(Juno)를 아들에게 붙여주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영진이 '밝은 진리'란 의미도 이야기하며 그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다.

2022년 가장 인기있는 남녀 아기 이름 탐 10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22년 태어난 아기들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남녀 이름은 '리암' 과 '올리비아' 였다고 사회보장국(SSA)이 12일 밝혔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여아의 이름 '올리비아' 에 이어 엠마, 샬롯, 아말리아, 그리고 소피아였고 남자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이름은 '리암' 에 이어 노아, 올리버, 제임스, 그리고 엘리아였다.

킬로로 키자까지 사회보장국 국장은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하는 첫번째 일이 사회보장국에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신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인기있는 아기 이름을 매년 알 수 있게 된다" 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여자아이 이름의 탐 5순위는 지난 해와 거의 유사했으며 유일하게 소피아가 지난해 7위에서 에바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섰다.

남자아이 이름으로 리암, 노아, 올리버는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제임스는 지난해 5위

에서 4위로, 엘리아는 지난해 4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다.

미국에서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이름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 이름들로 가장 급증하는 여자아이 이름은 렌리(Wrenlee), 네리아(Neriah), 알렛(Arlet), 조지나(Georgina), and 아미리(Amiri)다. 남자아이의 경우 더튼(Dutton), 케이시(Kayce), 초슨(Chosen), 카자(Khaza), 그리고 이산(Eithan)이었다.

사회보장국은 약간 흔하지 않은 이름일수록 빠르게 순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이름들은 순위변동의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 Top 10 girls' names**
1. Olivia, 2. Emma, 3. Charlotte, 4. Amelia, 5. Sophia, 6. Isabella, 7. Ava, 8. Mia, 9. Evelyn, 10. Luna

- Top 10 boys' names**
1. Liam, 2. Noah, 3. Oliver, 4. James, 5. Elijah, 6. William, 7. Henry, 8. Lucas, 9. Benjamin, 10. Theodore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3월 반등 접고 4월 보스턴 집값 다시 하락세로

주 전역의 단독주택 집값은 2018년 이래 처음 하락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봄 주택시장은 1년중 최고로 여겨지지만 올해 4월 보스턴 주택시장에는 봄이 사라졌다.

미 전국적인 경향에 맞춰 그레이터보스턴 집값은 4월 하락해 지난 5개월 중 4번이나 하락세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4월이면 가장 활발인 시기이지만 빠르고 높게 올라가는 금리의 여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레이터보스턴중개인연합(GBAR)이 17일 발표한 4월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 2022년의 \$845,000에서 3% 하락한 \$820,000이었다. 콘도미니엄은 1% 하락한 \$710,000이었다.

매사추세츠 전체 부동산 시장도 그레이터보스턴 주택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였다. 워렌그룹의 집계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단독주택 4월 중간 가격은 \$553,500로 지난해 \$560,000 하락했다. 주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집값이 하락한 것은 2018년 이래 처음이다. 콘도 중간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3.1% 떨어진 \$513,500이었다.

GBAR의 앨리스 소차 회장은 “올 봄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들쭉날쭉했다. 날씨도 무더운 날씨에서부터 추운 날씨가 반복됐고 이자율도 오르내렸으며 매물도 주마다 달라서 구매자의 구매도 오르내림을 반복했다.” 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포기하고 집을 팔기를 꺼려하는 집 소유주들로 인해 매물이 여전히 낫다는 것” 이라고 그는 덧붙혔다.

가격은 소폭 내림세였지만 거래는 큰폭으로 떨어졌다. 4월 주택 거래는 667건으로 지난해 900건에 비해 25.9% 하락했다. 콘도는 697건으로 2022년에 비해 33% 하락했다.

주 전역의 단독주택 거래수는 2,897건으로 25.3% 감소했으며, 콘도는 1,500건으로 30.2% 하락했다.

캐시 노트 워렌그룹 미디어데이터는 “적은 매물은 지속적인 문제이며 구매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

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구매할 집의 부족은 소유주들이 자신의 집을 판매를 망설이게 하고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보스턴 주택시장에서 봄 마켓은 가장 활발한 시기다. 지난 겨울 침체기를 지나 3월 가격이 반등했었으나 4월 하락세로 다시 들어선 것은 바로 매물 부족이다.

집 판매를 고려했던 소유주들은 대부분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현재 자신이 보유한 모기지의 낮은 이자율을 포기하길 꺼려해 다시 현재의 집에 눌러 앉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을 감수하고 주택을 구매하려 나선다 하더라도 살만한 집은 매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단독 주택 신규 매물은 4월 31.3%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며 콘도는 24.9%가 감소했다.

소차 회장은 “구매자들은 아직도 공급 매물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복수의 오퍼는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과거와 같은 오퍼 전쟁은 훨씬 드물다” 고 밝혔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

▶▶1면에 이어서

힘을 바탕으로 신선한 사운드를 구현하여 현대음악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작곡가, 지휘자, 연주자이자 교육자이다. 한국 음악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 국립국악원에서 연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J.M. 르클레어와 라벨의 작품인 서양 음악, 한국의 전통 음악인 아악과 산조, 그리고 리처드 캐릭이 작곡한 한국적인 분위기의 작품인 <성음>과 <사암>이 연주되며, 특별히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그가 양국의 민요를 넣어 만든 새로운 작품인 <Folk Music Celebration>이 초연된다.

제이 코스모스 리(바이올린), 자크 우즈(첼로), 김수연(플루트) 등 보스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 악기 연주자들과 시카고의 김현채(가야금), 캘리포니아의 주정현(해금), 보스턴의 김유나(아쟁), 한국의 방지원(장구) 등 국악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고 음악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줄 예정이다.

또한 안무가 미로 마글루아(Miro Magloire)가 이끄는 <뉴체임버 발레단>이 참여하여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한미예술협회의 김병국 회장과 나우선 음악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화합과 교류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총영사관과 함께 주최하게 되어 기쁘다. 리처드 캐릭 교수님은 한국 음악과 문

화를 무척 사랑하는 작곡가인데, 이 음악회를 통해 그를 보스턴의 한인 청중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도 기쁘고 기대된다. 동서양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고 무용까지 더해진 특별한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 주시면 좋겠다” 고 말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 한미예술협회 또는 총영사관의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지정된 주차장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공연 정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음악회
Beyond Borders
일시: 2023년 6월 16일 (금) 오후 7:30

장소: Sanders Theatre, Harvard University (45 Quincy St. Cambridge, MA)

티켓 신청 :
www.kcsboston.org 또는 usa-boston.mofa.go.kr

문의: (781) 223-4411

무료 주차: Broadway Garage (샌더스극장 이벤트에 왔다고 말하고 티켓을 받을 것. 공연장으로 갈 때 티켓 지참. 공연 후 다시 주차빌딩에 들어갈 때 주차 티켓이 있어야 문이 열림. 0.2 마일, 걸어서 5분) 또는 52 Oxford Street Garage (지하 주차장. 0.3 마일, 걸어서 6분)

bostonkorean@hotmail.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올 시즌 알러지가 유독 심한 이유

꽃가루 뒤덮인 봄계절 알러지 환자들에 더욱 고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알러지 시즌이 최근에 들어서면서 훨씬 악화되고 있다.

봄철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알러지를 유발하는 화분의 농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알러지는 가려운 눈, 콧물 그리고 호흡곤란을 유발해 봄철 알러지를 앓는 사람에게 점차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베이스라엘디콘스메디컬 센터 알러지 감염과 트리사 레이 박사는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는 특히 가혹할 정도로 나쁘다. 환자들에게는 커다란 이슈” 라고 지적했다.

레이박사는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높은 농도의 꽃가루는 알러지 증상의 악화로 풀이된다며 특히 뉴잉글랜드 지역의 꽃가루는 가장 가혹하다고 말했다.

최근 공기를 타고 꽃가루가 날리며 많은 곳의 표면에는 노란 화분이 수북히 쌓이고 있다. 웨더채널에 따르면 보스톤의 꽃가루 농도는 큐빅 미터당 평균 4,321개정도다. 미알러지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꽃가루는 1500개 이상이면 아주 높음 수준이다.

왜 꽃가루 분진이 훨씬 더 악화되는가?

20년 전에 비해 꽃가루가 더 많고 기간도 약 2주 간 증가한 것은 높은 온도와 이산화탄소의 증가 덕이라고 MGH 알러지면역학과장 알리나 배너지 박사는 밝혔다.

또한 최근들어 마스크 착용이 줄어들 꽃가루나 다른 알러지 요인 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꽃가루 시즌을 더욱 연장시켰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알러지 시즌은 1970년대 이래 약 15일 길어졌다.

높은 온도와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꽃가루의 생산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시간에 따라 꽃가루의 농도는 다른가?

기상학자 데이비드 엡스틴은 나무는 이른 아침 꽃가루를 발산하기 시작하고 보통 정오에 그 절정을 이룬다. 밤에 온도가 내려가면 꽃가루는 바다에 떨어지고 수북하게 쌓이게 된다. 또한 비가 오면 꽃가루가 씻겨 내려갈 수 있지만 올 봄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그나마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습도가 높아지면 알러지가 훨씬 더 악화된다. 축축하고 무거운 꽃

가루는 차를 뒤덮게 된다.

알러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알러지 증상이 심한 경우 야외활동을 줄이고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한다. 일반 판매 알러지약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가장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한다.

알러지 주사는 아주 심한 증상인 경우 이를 사용한다. 다른 치료제보다 효과적이지만 반복적으로 몇차례 주사를 맞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알러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은 단 하루만의 노출이 아니므로 매일 꽃가루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그리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버너지 박사는 “단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는 지난 며칠동안의 꽃가루 노출 정도와 지난 몇주 동안의 꽃가루 노출 정도에 의한 것”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증상을 악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인트 패트릭스테이 즉 이른 봄철부터 알러지약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레이 박사는 향후 몇주간은 “아주 심각하게 꽃가루가 많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무 꽃가루 시즌이 6월까지 지속되며 6월에는 풀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며 습도도 증가한다. 알러지 환자들은 7월과 8월이 되어야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돼지풀(ragweed) 꽃가루 시즌이 시작된다.

hsb@bostonkorea.com



21기 민주 평통, 각계각층의 글로벌 우수인재 영입 추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심점, 동포에너지를 담은 플랫폼으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회장, 석동현 사무처장)는 제21기 민주평통 동포위원으로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재외동포 글로벌 우수인재를 영입하기로 했다.

평통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재영입의 목적이 “세계 각국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인재들을 대통령의 통일정책자문위원으로 특별 위촉하여 긍지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에너지를 통일의 동력으로 잇고자 함” 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과학 기술 의료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금융 법률 등 분야

를 막론하고 각계에서 탁월한 성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사나 차세대 인재 등이다.

석동현 민주 평통 사무처장은 “언뜻 통일이슈와 관계가 멀어 보이는 IT나 AI 등 과학 기술 분야, 문화 체육 분야에서도 한인 동포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증대되면서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동포 우수인재들은 공관장의 추천 또는 사무처장 제청의 방식으로 위촉할 예정이며, 자기직접 추천이나 추천방식 관련사항은 관할공관을 통하거나 민주평통 사무처 (smlim1402@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권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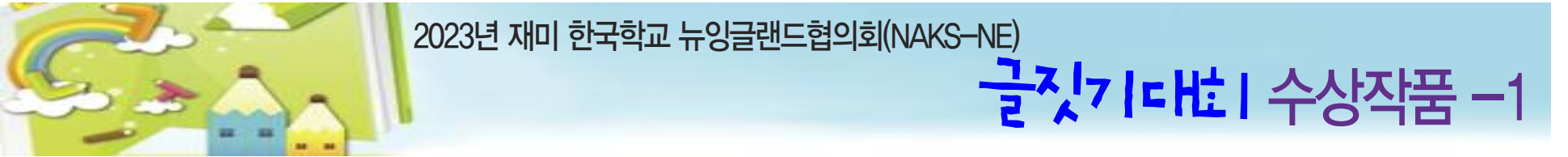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2023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1

[고학년 부문(6~12학년) 전체대상 수상작 (NAKS-NE 회장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10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노진

어느새 십학년이 되고 열 여섯살이 되니 저에게 중요한 일들과 가치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알아가기” 활동을 할 때, 자기 소개서와 ‘나의 가치관’ 또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많이 작성해서 냈어야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께서 저희에 대해서 더 알아가실 수 있으시도록 이런 활동을 더욱 많이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제 정체성에 까먹지 않는 것은 ‘한국인’, ‘크리스찬’ 그리고 ‘헬로’였습니다. 이 세가지 활동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자면, 바로 봉사입니다. 전 이 세가지 활동들과 관련이 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봉사활동입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바로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평생을 여기서 살아왔지만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인이고 저도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한국인’입니다. 저는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를 정말 어린 유치원 때부터 다녔고 유치원 때부터 한국어 올댓동안 같이 공부해왔던 친구들과 작년에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한글공부는 지루했고 숙제를 해가는 것은 더더욱 싫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고 보니 배운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졸업을 하고 난 후 저는 지난 가을부터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와 같이 미국에 사는 한국 학생들이 본인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더욱 알아갈 수 있으면 해서였습니다. 이 봉사를 통해서 한국인인 학생들 또는 그 외에 한국인이 아닌 친구들에게도 저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최근에는 입교를 한 모태신앙인으로 서 저에게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큰 정체성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학교와 같이 저는 저희 보스턴 은누리 교회를 유치원 때부터 오랜 기간 다녀왔습니다.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선생님들과도 많이 친했습니다. 저는 제가 유치부 어린이였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육학년 언니가 되는 순간 나도 유치부 선생님이 될거야”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학년이 되는 주부터 유치부를 섬기는 보조교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학교와 같이 저와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의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보람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의 정체성 중 하나는 ‘헬로’입니다. 삼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헬로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헬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연주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었습니다. 앞에서 연주를 하고 연주를 들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또한 너무나도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크고 작은 중요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가장 와닿고, 하면서 기쁜 일은 봉사 활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일은 저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 같은 기쁨, 도움, 그리고 선한 영향을 퍼뜨릴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에게 중요한 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학년 부문(K~5학년) 전체대상 수상작 (NAKS-NE 이사장상)]
재미있게 읽은 책



김수현 (4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저는 재미있게 읽은 책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 나가 딱 떠올라요. “더 루저스 클럽 (“The Loser Club”)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왜 이 책이 떠오르냐면, 제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그림없는 책’이예요. 저는 만화책과, 그림이 많은 책을 좋아합니다. 저는 작가가 표현하는 그대로 보고 싶거든요. 또, 그림이 없으면 좀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는 길잡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한번 읽어보기로 했어요. 좀 읽어보기 시작했는데, ‘에이, 또 뭐, 재미없네. 그냥 다시 갖다 놓고 다른 거 읽을까? 아니야, 계속 읽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나며 계속 읽었는데 조금씩 재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오호, 좀 재밌네?’라고 생각했죠. 곧 반까지 왔죠. 이제는, 계속 또 읽어보고 싶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됐어요. 드디어 책을 끝냈어요. 끝내자마자, ‘와, 그림이 없어도 재미있을 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 책을 읽고선 아무 책이나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았어요. 그다음부터는 친구들이 책을 추천해달라 하면, 바로 이 책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무슨 책을 읽을까? 할 때, 책을 찾는 눈을 바꿨어요. 원래는 ‘만화’ 쪽에만 있던 제가 이제는 모든 종류를 살펴보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특별상 수상작 (보스톤코리아상)]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강아지



노윤 (5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백화점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보인다.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것, 강아지. 슬픈 눈과 흔들리는 꼬리가 나의 관심을 잡았다. 강아지들은 말할 수 없지만, 볼 때마다 ‘야! 나 좀 봐!’라고 하는 마음이 강아지의 눈에 보인다.

“엄마! 아빠! 우리 강아지 키우자!”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는 부모님이 참 불쌍하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부모님에게 강아지까지 키우자는 어린 나.

“미안하지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강아지들을 못 키워.”라고 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더욱 더 보인다.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못 키울 수 있는 것이 사실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의 상상은 더 자라갔다.

내가 강아지를 키웠으면 학교에서 집에 올 때마다 나를 훑으면서 환영했겠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 학교 수업 중에, 시험들 중에, 하고 자기 전에 이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강아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강아지의 이름도 만들었고, 종류도 생각해 냈다. 강아지를 어떻게 잘 키우는지 책도 읽어 봤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강아지들을 위한 사랑이 풀렸다.

강아지를 오랜 시간 동안 키우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강아지를 키우자고 쟁쟁거리는 동안 엄마와 아빠가 나를 위해 있는 사랑이 더 잘 보이게 됐다.

아무리 귀엽고 좋은 강아지를 키워도,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더 중요할 것이다.

창문 밖으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생각했다. ‘

▶▶9면으로 계속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2차 대상자 신청 및 지급 안내

I. 보상금 신청

신청기간 2022. 6. 1 ~ 2025. 5. 31 ▶ 4·3중앙위 결정 신청순서에 의거 신청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022. 6. 1 ~ 2022. 12. 31	2023. 1. 1 ~ 2023. 6. 30	2023. 7. 1 ~ 2023. 12. 31	2024. 1. 1 ~ 2024. 6. 30	2024. 7. 1 ~ 2024. 12. 31	2025. 1. 1 ~ 2025. 5. 31	
인원	2,117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2,500 명	1,703 명 + α	

- **희생자의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기간(6차)에 신청함.
-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 840명**
 - 8차 추가신고기간(23. 1. 1. ~ 6. 30.) 경과 이후, 유족 결정 후 신청

▶ 4·3종합정보시스템 (<https://peace43.jeju.go.kr>)에서 신청순서, 신청서식,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는 자연이자 지급

II. 보상금 청구

청구대상 ■ 제주4·3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결정서 정본 및 통지서 송달받은 사람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유보대상자) 포함)

청구기한 ■ 보상금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4서식)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송금 희망 시) 해외 송금 신청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 서식)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III. 신청서류 (해외거주자)

-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 : 여권 및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권 등 선택)
 - 외국국적동포 : 여권 및 국적국가 신분증 사본
 - * 외국 국적취득으로 이름이 변경된 경우는 이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 해외거주자 송달방법 신고서(별지 서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별지 서식)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 본인서명확인서)
 - *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 서명확인서 등 제출

▶ 제출서류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중 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

▶ 위임장, 서명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주재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인증하여 발급 제출

접수 및 문의처

도내 거주자 ▶ 방문 접수

-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2-64-728-1961~6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 +84-64-760-3991~4
-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

도외·해외 거주자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주도 4·3지원과 [보상지원팀] ☎ +82-64-710-8450, 710-8941~6
- ☎ 63122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도청 4·3지원과 [보상지원팀]



2023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2

▶▶8면에 이어서

[Kinder 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물놀이



김리안(Kinder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저는 물노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천병천병 소리가 좋고 오빠랑 가지 물
노리랑 물총놀이도 하고 아빠 다이빙하는 것도 보
고 엄청 더운 여름에 가면 엄청 시원하고 제가 수영
레션한 것도 할 거다
그리고 수박도 먹을 거다 다음에 또 와야지 더 시

연하겠지?
내일도 또 가야지 너무 시원해 너무 너무 시원해
다음에도 또 가고 또 만이 놀고 을거야
또 가면 너무 좋겠지 또 수박도 먹고 더 재미있게
놀아야지
너무 너무 좋겠지 너무 좋을 거요.

[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물놀이



한다연(1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나는 동물원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많고 재미있는 것이 만키 때
문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치타예요. 나는 스토
운 주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많아서 좋
아해요
어떤 동물원은 놀이터가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죽은 봄에 동물원을 자주 가요.
동물원에 맛있는 음식도 있어서 좋아요. 나는 진
짜 동물들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소리를 외쳐요.
내 생각에는 동물원은 정말 재미있는대예요. 나
중에 내 동생들이 더 커서 더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
겠어요.

[2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재미있는 내 생일



이유진(2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저는 생일, 크리스마스, 설날 중에 한 개를 고르
라면 생일을 고를 정도로 제 생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받고 싶은 선물과 달콤한 케이크
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내 생일에는 선물대신 아주 신나는 여
행을 가든가 아니면 생일 파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한국에 가서 제 할머니, 할아버
지와 친척들이랑 같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 때는

제가 좋아하는 포켓몬 케이크와 풍선들을 받았어요
. 그러면서도 저는 생일 케이크를 먹은 후 그다음날
에 친척들과 장난감 가게에 가서 생일 선물로 포케
몬 소드엔 실드라는 포켓몬 상자를 받았어요. 그리
고 몇 시간 뒤에는 할머니가 또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번에는 베이블레이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시간 후에 다시 친척들과 같이 포켓몬 상자를 열었
어요. 그리고 한동안 나는 그 많은 카드들을 어떻게 정

리할까 고민을 했다.

결국 나는 안쓰는 카드들은 다 상자 안에 넣기
로 결정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다시 들러서 팽이와 초코맛 포켓몬 빵을 받았는
데 그 안에서는 귀여운 이상메씨 포켓몬 스티커
를 받았다. 우리 엄마는 그 이상메씨가 스티커가

너무 귀엽다고 조르기까지 했어요.

이제 저는 그 많은 선물들을 보고 아주 흐뭇했
어요.
이제 저는 아주 긴 생일 여행을 끝내고 집에 올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영쩍일초도 빨리 한 번 더
한국에 가서 친척들과 생일을 맞이하고 싶어요.

[3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이다음에 커서



항 준(3학년, 북부보스턴 한국학교)

나는 커서 발명가가 되고 싶다. 왜냐하면 발명
가가 되면 로봇을 만들수있으니까. 로봇을 만들
면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을 할수있으니까.
애를 들면 사람들은 우주에 못가는 행성들이
있지만 로봇은 그런곳도 갈수있으니까.
또 로봇들은 보통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더
쉽게 할수있으니까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로봇은 멀만들데 더 빨리 할수있다.

또 로봇은 사람들이 위엄해서 못하는 것을 위
엄하든지 말든지 산관업시 쉽게 할수 있다.
그리고 로봇들은 사람이 해도 안전한지 테스
트할데 로봇을 써두 다. 또 발명가가 되면 사람
들이 잘못할데 쉽게 뭔갈 만들어서 도와줄수도
있다. 이미 발명가들이 만든게 지금 우리를 도와
주고있어요. 그래서 저는 발명가가 되고 싶어요.

[4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재미있게 읽은 책

조민수(4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이 세상에서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아니예요. 저는 책을 읽기 싫어해도 우리
는 모두 다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책
이 "큐컴버 퀴에스트/큐컴버의 모험" 이에요.
그런데, 왜 그 책이 너무나 재미있죠? 또, 그 책은
무슨 책일까요? 제가 그 책을 지금부터 소개해 줄
게요.
먼저, 왜 저는 이 책을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만
화책이예요! 만화책들은 그림이 많이 있었어, 계
속 글을 읽는거보다 훨씬 좋아요! 또, 내가 좋아
하는 이야기기도 있고, 등장인물들도 너무 멋있어

요! 저는 뭐 마법이랑, 용들이랑, 신비로운 곳들
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책은 " 큐
컴버 퀴에스트/큐컴버의 모험" 이에요.
다음, 그 책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책은 시
리즈라서, 그 첫 번째 책을 짧게 이야기 할게요!
큐컴버는 마법을 배우는 학생이예요. 근데, 큐컴
버의 아빠 캐배지가 드림나라를 무서운 코데라
여왕에게서 구해야한대요! 다행히 큐컴버의 여
동생 알몬드가 같이 큐컴버를 도와줘요. 다른 친
구들도 같이 만나서 큐컴버를 도와줘요! 큐컴버
는 나쁜 코데라 여왕을 싸울수 있을까요? 이야기
를 더 알아보고 싶으면 한 ▶▶11면으로 계속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재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I've helped 350+ clients find their place in Greater Boston.

부동산 전문가,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FINANCIAL FREEDOM)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모든 상담을 해 드립니다.

실력, 열정 그리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더욱 풍성한 2023년 새해가 되도록 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wards:

- 2022 Boston Magazine Top Real Estate Producers
- Wall Street Journal America's Best Real Estate Professionals List

COMPASS

Achieved in 2022

\$22M+

TOTAL SALES & RENTALS

36+

TOTAL # OF TRANSACTIONS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3

▶9면에 이어서

번 “큐컴버 쿠웨스트/큐컴버의 모험” 을 읽어보세 요!

제가 처음에 이책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이 쿵쿵! 쿵쿵! 달렸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가 너무 깊은데, 웃기고 재밌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찌지? 옛, 이렇게 되네. 너무 웃기다! 하면서 읽고 있었어요. 이런 책은 한번도 안 읽어서 너무 재밌게, 신비롭게 읽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때는 큐컴버의 아빠 캐배지가 감옥에 가졌는데, 큐컴버가 캐배지를 만나고 나쁜 코데라 여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캐배지가 감옥을 벌써 탈출했지 뭐예요! 그래서 캐배지가 너무 명칭해서 다시 감옥에 쏙~들어갔어

요. 그 때 저는 너무 웃겼어요! 캐배지가 그동안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런 웃긴 장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못 썼어요. 근데 이 장면이 제일 웃겼어요!

결론으로, 이 책은 참 웃기고, 깊고, 그리고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 책은 십점 만점에 저는 9.9를 줄 거예요. 아직 그 마지막 책은 안 나왔지만 그 시리즈 네 권만 읽어도 충분해요! 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던지 아니면 책을 사서 읽던지, “큐컴버 쿠에 스트/큐컴버의 모험” 을 읽어보세요!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할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5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 애완동물



신아라(5학년, 내슈아한마음 한국학교)

나는 유년기 시절부터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었다. 처음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고양이라는 생명체를 접했을때부터 나는 애인지 모르게 애완동물을 가지고 싶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년 후, 나는 동물원을 갔다. 거기서 새로운 동물들을 많이 접하고 난 후, 나는 애완동물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졌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반려동물이 있었으며...”

그렇게 나는 매일 매일 부모님에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되겠냐며 졸랐다. 하지만 매번 나에게 돌아온 건 냉담한 부모님의 “안 돼” 뿐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동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 동물을 지켜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날, 나의 외할머니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라야, 내가 강아지 한마리를 데려왔는데, 한번 보지 않겠니?” 그때 나의 기분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주말이 오자마자 우리 가족은 곧장 할머니와 할머니의 강아지를 보러 서둘러 할머니덕으로 향했다. 할머니의 댁에 도착하자, 작고 하얀 물체가 꼬리가 떨어질 것만양 꼬리를 흔들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운명처럼 강아지는 나에게로 달려왔다. 나

는 강아지를 보자마자 이름을 사랑이라 짓자고 하였다. 사랑이는 나의 첫 애완동물 아닌 애완동물이었다. 비록 내가 사는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지만 난 할머니집으로 놀러갈 때마다 보는 것 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러던 어느날, 또 다른 뜻밖 에 소식이 들려왔다. 사랑이가 새끼들을 낳았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바로 할머니의 집으로 내려갔다. 사랑이의 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자, 3 마리의 작고 눈도 채 뜨지 않은 새끼 강아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난 조심스럽게 한마리를 만져보았다. 너무 작고 소중해서 손에 더 힘을 주어 만지면 마치 부서 질 것 같아 난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사랑이 의 새끼들을 본 후, 나의 애완동물에 대한 욕심은 나날이 커져갔다. 그리고 약 2년 후, 나는 아빠의

직업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사를 왔다. 나는 현재로서는 여기서 정말 생김새, 색깔, 크기의 강아지 또는 개들을 매일 보면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난 여전히 애완동물이 정말 갖고 싶고 내가 실제로 애완동물이 생기는 날까지 나는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난 애완동물이 생기는 날까지 나는 완벽히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난 애완동물이 생기는 순간까지 동물을 좋아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미래 애완동물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지 끊임없이 학습하고 노력할 것이다. 난 애완동물을 정말 갖고 싶다!!!

[6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이다음에 커서

나연재(6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어떤 동물은 몸집이 크고, 어떤 동물은 몸집이 작고, 또 어떤 동물들은 영리하다. 동물들은 숲속이나 자기들의 몸과 맞는 곳에서 사는 반면, 인간들은 다 같이 도시나 같은 지역에서 살곤한다. 이렇게 보면 인간들과 동물들이 사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동물들의 입장에서 본 인간 세상은 어떨까?

동물들은 앞서 말하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니 각각 인간의 세상을 똑같이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종류가 달라도 인간의 세상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다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빌딩들이 각각 살짝 다르다. 어떤 빌딩들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정말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다. 곁에는 살짝씩들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빌딩들의 안을 보면 다 천차만별이다. 또 각각 다른 도구들, 장난감, 그리고 집들까지 정말 다양하다는 생각 밖에 안 날 것 같다. 또, 인간세상을 본 동물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과 ▶▶12면으로 계속

보스톤 한인들을 위한 말씀집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찾는 행복

당신은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늘 우리 곁에 사랑의 얼굴로 다가와서는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소문을 내지 않아도 소문 나던 분,
가난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을 가까이 하시던
그분의 손길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을 느끼며
인생의 결국이 온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만나 보셨습니까?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보셨습니까? **결정**하신은...

행복한 만남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강사 : 박진용 목사

- 5.30(화) 7:30pm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5.31(수) 7:30pm 믿어보니 너무 좋아요!
- 6. 1(목) 7:30pm 순간의 일생을 영원의 일생으로!
- 6. 2(금) 7:30pm I will give you rest!
- 6. 3(토) 10:30am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일시

2023년 5월 30일(화) ~ 6월 3일(토)

장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 한인교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781) 279-3270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4

▶▶11면에 이어서

비교를 할 것 같다. 자기들이 살던 곳은 인간 세상보다 덜 시끄럽고 조금 작아보일 것 같다. 인간 세상은 동물들의 세상보다 더 복잡하고 크다. 인간들은 같은 지역이나 동네에 같이 살아서 빌딩들과 집들로 복잡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동물은 시끄러울 것 같다. 특히 작은 동물들은 인간 세상이 더 크고 시끄럽고, 복잡했다는 것을 다른 동물들보다 더 느낄 것 같다.

동물들은 자기가 살던 나무들로 꽉 차있는 세상을 보고 인간 세상을 보면 놀랄 것 같다. 인간 세상에서는 나무들이 동물 세상보다 적기 때문이다. 이로서 동물들은 인간 세상이 조금 더 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 동물들은 야생에서 생활하여 거의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세상을 보면 요리를 해 식량을 만들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놀랄 것 같다. 동물들은 식량을 쉽고 간편하게 구하지 못하는 반면 인간들은 마트나 시장에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신기해 할 것 같다. 또 인간들은 요리를 해 먹지만 동물들은 생으로 먹

기 때문에 요리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 같다. 가장 영리한 동물들도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기에 인간들은 이렇게 손쉽게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부럽고 신기해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인간들은 돈을 쓴다는 것에 놀랄 것 같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모든 것이 자연으로 만들어졌기에 다 공짜일 것이다. 동물들은 인간들의 돈 문화를 어려워하고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다. 또한, 동물들은 돈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다. 인간 세상은 거의 돈이 생활의 중심이니 동물들은 돈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할 것 같다. 동물들은 자연에서 살다 보니 인간 세상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 세상을 신비롭게, 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동물들은 인간들과 다른 삶을 살아왔으니 많은 관심과 궁금증이 있을 것 같다.

[7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내가 존경하는 사람

김하연(7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제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함께한 엄마입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존경하는 이유가 많은데요, 첫째로는 저를 언제나 잘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미국으로 이사 왔을 때 저는 많은 것들을 몰랐고, 영어도 하나도 모른 채로 와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힘든 시기에 엄마가 영어를 잘 가르쳐 주고, 많이 도와줘서 정말 멋진 엄마로 보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동생이나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음식도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엄마도 힘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도와줘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또, 존경스러운 이유는 바로 일을 꾸준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교회에서는 어린 애기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어린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일을 꾸준히 하면 정말 멋져 보이고 존경합니다. 밖에 일뿐만이 아니라 집안일도 꾸준히 해서 멋지고 존경합니다. 전도사님 일과 사람들을 도와줘서 힘들텐데 집안일도 같이 하고, 일을 정말 잘 하고 열심히 할 일을 착실히 해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일을 착실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

리 엄마는 또 힘들 때면, 어떨 때는 너무 더 힘들지 않으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할 일들과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스트레스나 더 크게 힘들고 싶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엄마를 보고 너무 힘들 때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엄마를 존경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과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별개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과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대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엄마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잘 대해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런 것들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더 좋아지면 멋져 보입니다.

제 엄마를 보면서 배운 것도 많고, 좋은 일들을 본게 많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다고 생각합니다.

[8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기억에 남는 여행

안유찬(8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저는 시트콤 드라마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웃긴 일이 일어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한 여행이 그 시트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은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족은 메인으로 여행을 갈 생각에 싱글벙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가는 호텔에 혹시 수영장 있어?” 엄마는 그렇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영을 좋아한다는 걸 알기에 원래는 수영장이 없는 대신 인테리어가 정말 예쁜 호텔에 가려고 했지만 절 위해서 수영장이 있는 대신 인테리어는 한 단계 낮은 호

텔을 예약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감동을 먹은 상태로 제 수영복과 잠옷, 그리고 여분의 옷들을 아빠 캐리어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 가족은 신나는 마음으로 차에 탑승한 뒤 메인으로 출발했습니다.

호텔에 들리기 전에 우리는 한 바닷가에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형이랑 서로에게 진흙을 던지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온 몸이 젖고 더러워져서 찻찻한 마음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룸에 도착한 뒤 짐을 풀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빠

가가저은 캐리어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빠가 뻔뻔하게 감박하고 집에 캐리어를 놓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처음에는 이 상황이 웃겨서 깔깔 웃었지만 무언가가 기억나 몸이 굳었습니다. 바로 아빠 캐리어 안에 제가 수영복과 여분의 옷들을 넣어 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큰일났다고 생각한게, 수영복이 없어 수영을 못하는 건 둘째치고 여분의 옷이 없으니 이 진흙으로 축축한 옷을 못 갈아입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희 가족이 아빠한테 얼마나 화를 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때 저는 한 가지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형 옷으로 갈아입는 거였습니다. 형은 자기 옷들을 엄마 캐리어에 넣어 놨기 때문에 지금 자기 옷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은 자기 옷을 주는데 썩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옷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일단 옷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면 수영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했습니다. 수영을 안 해도 됐지만 일부러 이 호텔을 예약한 엄마의 정성을 봐서라도 꼭! 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나의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팬티를 수영복 대신에 입고 수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영장에 사람이 있다면 쓰지 못할 방법이지만 이때는 시간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팬티를 입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이 없어서 신나게 수영을 했습니다. 1박 2일 여행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지만 형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와 “우리 인생에도 시트콤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SNS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세라(9학년, 내슈아 한마음 한국학교)



세상은 SNS를 하는 사람과 SNS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그 SNS를 하는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생긴다. 팔로워가 많은 사람과 팔로워가 적은 사람, 그리고 사회는 흔히 팔로워가 많은 사람을 “인싸” 라고 부르고 적은 사람은 “아싸” 라고 부른다. 나는 12살 때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나의 일상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게시물을 올렸지만, 몇 달 후 모든 게시물을 내리게 되었다. 이유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의 게시물과 비교할 때 한없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SNS가 본래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통으로 삼키는 괴물이 된 것 같다. SNS는 장점도 수도 없이 많지만, 그만큼 확실한 단점도 존재한다. 뉴스는 늘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과 연락한 후 실종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에 비롯한 다른 많은 범죄도 SNS를 통해 저질러진다. 하지만 SNS의에 여파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와 한 구성원인 나와 나에 친구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내가 SNS를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팔로워” 라는 것을 접했다. 그후 학교 선배들이나 친구들의 인스타그램을 접하며 무의식적으로 나의 팔로워 수와 다른 사람의 팔로워 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친구로 추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 딸 팔로워 100명만 찍고 그 만해야지” 라고 다짐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듯, 그 목표가 200명, 300명, 그리고 400명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나는 “띠링” 알람이 울릴 때마다 허겁지겁 SNS로 접속하곤 했다.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그들도 그랬다고 한다. 이외에도 SNS는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좋아요 수와 댓글 수를 비롯한 SNS의 기능들이 나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의 게시물을 본 후 끝

없이 비교해 나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성적에 대한 자존감을 정말 많이 낮추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언제쯤 저렇게 자신있게 셀카를 올릴 수 있을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생각을 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것 같다. 그렇게 나는 팔로워 수와 좋아요 수로 계급이 나누는 가상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 나는 나만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않는다. 사춘기를 겪을 때 하는 수많은 고민 속 SNS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스타를 그만 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미래에 살아갈 우리에게 SNS가 기본 자질로 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 많은 상처를 입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된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SNS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뿐이다.

인스타를 비롯한 SNS에는 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다. 이미 SNS없는 살기 힘들어진 MZ세대 친구들을 위하여 SNS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어쩌면 내가 전하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알고리즘을 통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괜찮아, 잘 하고 있어. 너는 멋져” 그리고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인싸와 아싸, 인기녀와 오타쿠, 미녀와 잔파녀. 가상 세상에는 벌써 이런 미움으로 찬말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런 별명을 다른 사람들이 붙여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하지만 그 수많은 시련 중에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아무리 상처를 받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한다.

[9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엄마, 미안해요

이준호(9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2022년 재미 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NAKS-NE)

글짓기대회 수상작품 -5

▶▶12면에 이어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제가 오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어머니 날인데 한글학교 글짓기 대회에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로 주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직접 말해주지 못한 말을 편지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 쓰려고 하니 좀 쑥스럽고 어색하네요.

어렸을 때 언제나 엄마 곁에 딱 붙어있어서 ‘껌 딱지’라고 불렀던 걸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다면 엄마에게 얘기했던 수다쟁이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보니, 나는 내 방에서 문을 꼭 닫고 지냈고, 엄마가 말을 할 때는 헤드폰을 쓰면서 엄마 말씀을 듣지도 않은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될 말도 무시하면서, 어떤 일이 잘못될 때마다 엄마 탓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나 엄마 생일이 되면 스스로 만든 선물과 카드를 주고 파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 생일은 기억도 못해서 엄마는 속이 상했죠. 엄마

는 ‘사람조차 안되는 존재’라고 하면서. 아니에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보다 저는 엄마를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상처를 받을 행동과 말은 엄마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에게 그렇게 많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이 저를 미워해도 엄마는 언제나 내편을 들어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엄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신 만큼 엄마에게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감사해요.
사랑하는 엄마의 아들 올림

[10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태권도장은 나의 또 다른 집)

최유나(10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지난 15년을 사는 동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많다.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 매일 매일 항상 수많은 일들을 겪고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는 말이다.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화나는 일, 심지어 짜증나는 일들도 꽤 많다. 하지만, 나에게 항상 기쁨을 가져다주고 심지어 안 좋은 일 들까지 잊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태권도이다. 내겐 최고의 취미인 태권도는 내 인생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2학년때부터 시작한 태권도는 나의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태권도를 처 좋아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의 재미있는 관장님 때문 일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태권도를 재미있게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어린 나에게 부모와 관장님에 대한 존경을 가르쳐 주시며, 점점 열심히 하는 나에게 승부욕을 주신 것이다. 나는 매일 매일 학교 끝나고 태권도장에 가는게 기대된다. 학교가 끝나고 Track을 하고 난 이후라서 체력적으로도 엄청 힘든데 말이다. 나는 태권도장을 들어 가는 순간마다 몸이 이미 많이 힘들다는 것을 잊는 것 같다. 태권도장에서 나는 마치 하늘을 날아 다닌 것 같다. 몸은 가볍고, 높이 뛰어서, 크게 돌며, 힘차게 발차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태권도는 나에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이기도 하다. 슬프거나, 화나는 일, 또 짜증나는 일이나 후회하는 일들 까지 나는 매번 태권도를 하며 날려버린다. 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타켓

에 짹! 소리가 나게 발차기를 하며 화를 푸는 것이다. 기합 소리도 엄청 크게 ‘야!’ 하고 소리치며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도복소리’가 나에게 힘있게, 절도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요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태권도 시합을 가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것들을 뽐내며,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낯선 심사위원들과 수 많은 나의 경쟁자들 앞에서 서서 태권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는게 사실이지만, 또한 이렇게 멋있게 태권도를 자랑할 수 있다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고도 생각이 든다. 그 떨림을 감안하고 시합을 열심히 끝낸 다음 나의 목에 걸리는 금메달을 볼 땐,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가장 최근에 참여한 태권도 시합에서는 200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태권도 선수 문대성이 있었다. 내가 그 날 탄 크고 무거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문대성과 함께 사진도 찍고, 도복과 스웨터에 사인도 받은 그날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도 내 친구들은 내가 무슨 말만하면 태권도를 잘한다고 조심하라고 놀린다.

태권도는 나에게 박힌 큰 캐릭터 중에 하나이며, 태권도 없이는 나도 없을 것 같다. 나의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제,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나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나를 더 새로운 기회들로 이끄는 태권도는 내게 절대 빼놓지 못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런 태권도를 하며 날아 다닐 수 있는 나의 태권도장은 나에게 또 다른 집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

[10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공동 수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서예린(10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모두에게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다.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한다. 나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미래는 딱히 없다. 물론 좋은 대학가고 즐기는 직업을

갖고 싶지만, 제가 상상하는 완벽한 삶에는 꼭 하나가 생생하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엄마의 행복이다.

17년 전에 나의 엄마와 아빠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 음식과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겨우겨우 매일을 살아가셨다. 아파트 하나 하나씩 이

사하시며 나를 키워주셨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제일 잘하고 싶어했다.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벽에 붙이실 만큼 그림을 예쁘게, 열심히 그렸다. 또 수영 대회가 있으면 열정을 쏟아부으며 꼭 1등을 하곤 했다. 이 제서야 생각해 보니까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엄마의 뿌듯함을 보고 싶어서 했었다.

“너는 왜 그렇게 엄마의 행복을 원하니?”라고 궁금해 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다. 맛있는 국과 반찬들을 해주신 점도 있지만, 한국에 사셨던 인생을 나를 위해 버려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더더욱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 엄마는 한국에 사시면서 좋은 직업도 있으셨고 친구들도 많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에 오시고 난 후에는 사귀는 친구들은 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고 조그만 식당에 일하시게 되었다. 어떤 날에는 “엄마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숨을 쉬며 말하시곤 한다. 그 말을 듣는 나는 가슴이 찢히고 엄마의 축 처진 모습

을 다시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의지가 생긴다. 엄마가 그리워하시는 꿈이 결국 나의 꿈이 되어 버렸다.

우리 엄마가 제일로 원하시는 것은 집이다.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는 마당과 넓은 부엌을 가진 집, 그 소원을 계속 듣다 보니 나의 꿈은 그런 집에 사는 것으로 되었다. 아, 그리고 넓은 부엌에는 큰 냉장고가 있을 거다. 이 꿈을 상상할 때마다 엄마의 기쁜 미소를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를 호강시켜주고 싶어도 이렇게까지 엄마밖에 생각하면 ‘너의 인생으로 뭘하고 싶은지 모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할 수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의 피땀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살아갈려면, 나의 행복을 위해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진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가시밭의 끝에는 꼭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 열은 푸른색으로 칠해진 아늑한 집, 알알 짓는 강아지, 그리고 활짝 핀 얼굴로 나를 향해 뿌듯하게 걸어오시는 나의 엄마.

[11학년 부문 대상 수상작]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추억

안유진(11학년,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추억은 마치 타임머신과 같다. 언제 어디서든 지 과거에서 느꼈던 감정, 맛, 냄새, 소리, 그리고 그때 보았던 경치등을 떠올리며 그때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체험하게 해준다. 친구와 함께 과거에 있었던 웃긴 순간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웃을 수도 있고, 침대에 혼자 누워서 이제는 하늘로 올라간 강아지와 함께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글썽이는 눈물과 함께 다시 한번 입가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 있다. 하나 정말 소중한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 때는 2019년 겨울,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는 스키폴 공장에 있는 한 비행기 안이었다. 오른쪽 창가 자리에는 내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내 동생 그리고 비행기 중간 좌석에는 우리의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우리 가족은 4년 동안 살던 네덜란드를 떠나기 직전이었다. 나는 핸드폰으로 친구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보내고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살짝 슬픈 것 말고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사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예전에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갈 때 비행기 안에서 평평 울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울고 싶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그냥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소음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네덜란드

에서 보낸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았다. 미국으로 이사하면 더 이상 시원한 더치 바람을 쐬며 운하 옆으로 자전거를 타며 등교하는 날은 없겠네... 더 이상 우리 집 뒷마당에 항상 놀러오던 야옹이도 암스테르담에서 먹은 맛있는 해림과 스트로워와플 이제 막 중학교에서 사귀는 새 친구들도 전부 다 안녕이네...와 같은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 핸드폰으로 전날 교회에서 친구 누가 형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집에서 찍은 야옹이의 마지막 사진을 꺼내 보았다. 이제 사진 속에 있는 친구들을 더 이상은 못 볼거라는 생각을 하니 눈물이 살짝 글썽거렸지만 다시 수축 억지로 집어 넣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비행기 바퀴가 드르륵 거리며 내 마음도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분명 어제까지 잤던 집을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이 또 떠올랐는데 현실같지 않았다.

비행기가 하늘에 뜨고 나는 어느 순간 평평 우는 나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들과 친구들이 너무 고맙웠다. 이것이 내 추억이다. 몹시 슬프지만 나에게에는 참 소중한 추억이다. 현재 미국에서 살며 가끔 언어장벽 - 물론 나는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 과 같은 장애물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많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추억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 준다. 추억은 지금의 나를 더 낫고 잘 견디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 추억이 있기에 나는 현재를 받아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루 5분 플랭크로 뱃살 걱정 끝!



플랭크(PLANK)는 팔 어깨 등 상체 근력과 함께 코어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뱃살 빼는 운동 중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복근운동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혼자서 하기 힘들고, 힘들다보니 자꾸 미루게 되고 해도 중간에 그만 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너무 어렵지 않고 또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플랭크 변형동작들로 5분 복근 챌린지 운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나이살이라고 하는 허리살 옆구리살 똥배살을

그대로 방지하면 비만과 성인병 등 다양한 질병을 초래하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 오늘부터 저와 더도말고 5분씩 플랭크 운동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동작들은 (DAY3) 전신근력 챌린지/5분 플랭크 (초보자 환영) 영상을 찾아 따라해 보시면 훨씬 이해도 쉽고 재미있게 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Table Top + Arm Extension : 초보자를 위한 코어, 밸런스 강화

1단계 네 발기기 자세에서 오늘 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두어깨의 수평을 맞춰주세요.

2단계 오른손을 제자리로 내리고 강하게 등쪽으로 수축하며 이번엔 왼손을 앞으로 뻗어 줍니다.



3단계 방향을 바꿔가며 반복합니다.

4단계 10회 이상 반복 후, 잠시 아기자세로 편안하게 휴식합니다.

TIP! 손이 어깨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손을 앞으로 길게 뻗어주는 걸 잊지 마세요.

2. Plank + One Arm Extension : 숙련자를 위한 코어, 밸런스 강화

1단계 이번엔 같은 동작을 네발기기 자세가 아닌 플랭크 자세에서 시도합니다.

2단계 왼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고 발꿈치를 뒤로 밀어내며 오른손을 앞으로 뻗습니다.

3단계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의 힘을 유지하며 반대 팔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합니다.

4단계 손목이 아프다면 중간에 무릎을 내리는 옵션으로 바꿔 진행합니다.

TIP! 두 발을 엉덩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면 중심을 잡고 몸통이 흔들리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3. Plank/ Table Top + Knee Tap : 초급 + 숙련자 모두를 위한 코어운동

1단계 네발기기 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보내 한 무릎씩 바닥에서 떼어줍니다. (초보자 버전)

2단계 1단계 운동으로 충분히 워밍업 해준 후, 가능하다면 플랭크로 올라와 무릎을 하나씩 내려 바닥을 터치합니다.

3단계 앞의 두 옵션 중 나에게 맞는 선택으로 1분간 쉬지 않고 무릎을 바닥에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합니다.

4단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기 위해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 아기자세로 휴식합니다.

TIP! 복근 운동을 하다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복부를 더 강하게 등쪽으로 끌어당기시고, 그래도 통증이 있을 경우는 잠시 두 무릎을 내리고 휴식하고 다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4. Elbow Plank + Leg Lift : 레벨에 맞춰 진행하는 전신운동

1단계 팔꿈치를 내려 로우플랭크의 자세를 취합니다.

2단계 초보자들은 다리를 뻗고 버티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10초, 20초, 30초 이런식으로 시간을 늘려 훑당해 줍니다)

3단계 위의 단계가 수월하신 분들은 다리를 하나씩 드는 연습을 해봅니다.

4단계 팔 어깨 코어의 자극 뿐 아니라 다리를 들 때마다 엉덩이의 자극에도 집중해봅니다.



TIP!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이 엘보 플랭크를 다리드는 변형 동작없이 꾸준히 운동해보세요. 점점 코어의 힘이 좋아지면 다리를 드는 것도 가능해질 거예요.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MAY 19th - MAY 25th,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STARCH YOUR MEAL OFF RIGHT WITH ACCORDION POTATO SKEWERS!

Make some noise for accordion potato skewers, a new viral sensation that's taking the world by storm. SNS에서 핫한 감자꼬치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p>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툴포 망고 BOX \$12.99</p>	<p>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p>	<p>Malanga 말랑가 LB \$1.29</p>	<p>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p>	<p>Korean Singo Pear 한국 신고배 BOX \$34.99</p>
<p>Eddo 토란 LB \$1.49</p>	<p>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p>	<p>Ginger 생강 LB \$2.99</p>	<p>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p>	<p>Sweet Potato 고구마 LB \$2.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8.99</p>	<p>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5.99</p>
<p>Fresh Pork CT Butt Steak 생 돼지 목살 (소금구이용) SLICED/LB \$6.99</p>	<p>Fresh Chicken Drumstick 생 닭다리 LB \$1.49</p>
<p>Frozen Beef Ribeye Roll 냉고기 롤 냉동 소 등심 FAMILY PACK/LB \$8.99</p>	<p>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 UP'S/LB \$12.99</p>	<p>Head-on Shrimp 머리새우 30-40'S/LB \$4.99</p>
<p>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6.99</p>	<p>Frozen Cleaned Salted Yellow Croaker 손질된 자반 참조기 LB \$7.99</p>
<p>HWAWOODANG Frozen Spicy Stir-fry Octopus/Cuttlefish/Squid 화우당 낙지/갑오징어/오징어 볶음 12.69 OZ/PKG \$3.99</p>	<p>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Frozen Snapper 홍도미 LB \$9.99</p>

SMART CARD MEMBER ONLY

<p>H MART SMART CARD ONLY ORGANIC FARM Organic Brown Rice 유기농장 100% 유기농 안심잡곡 현미 15 LB \$38.99</p>	<p>H MART SMART CARD ONLY NONGSHIM Shin Ramyun Noodle Soup 농심 신라면 4.23 OZ X 16 EA/BOX \$14.99</p>
<p>H MART SMART CARD ONLY I WANT 100% Natural Spring Water 아이원트 100% 내추럴 스프링 워터 16.9 FL OZ X 24 EA/PKG \$4.99</p>	<p>H MART SMART CARD ONLY HAO Ume Plum Syrup 해오름 매실청 24.35 FL OZ \$6.99</p>

<p>YECHON Korean Rice 예천 일품쌀 22 LB \$24.99</p>	<p>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 OZ X 6 EA/PKG \$10.99</p>	<p>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7.99</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16.9 FL OZ \$2.99</p>	<p>CHUNGJUNGONE Essential Sun Dried Salt 청정원 신안염보배 천일염 굵은소금 5.5 LB \$9.99</p>
<p>BEYOND THE OCEAN Fried Fish Cake 바다너머 부산어묵 1.76 LB \$3.99</p>	<p>JONGGA Authentic Korean Cold Noodles 종가집 함흥식 비빔/평안도식 물냉면 SPICY SAUCE/ BEEF-BASED BROTH 13.4 OZ \$3.99</p>	<p>OSAKI BRAND Fish Cake 오사키 게맛살 1.1 LB \$6.99</p>	<p>CHORIPDONG Fresh Noodles for Kalguksu/Udon & Jajang 초립동이 손칼국수/우동 및 짜장 생면 2.2 LB \$2.99</p>	<p>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ek) 유동 자연산 골뱅이 캔 14.1 OZ \$6.99</p>
<p>CROWN White Heim/Choco Heim 크라운 초코하임/화이트하임 10.02 OZ/PKG \$3.99</p>	<p>TIGER SUGAR Boba Milk Ice Cream Bar 타이거슈가 보바 밀크 아이스크림 11.28 OZ (4 BARS) \$5.99</p>	<p>HELLO HOME Daisy Seersucker Ripple Summer Comforter 헬로홈 올리비아태코 데이지 시어셔커 리플 차렵 여름 이불 180 X 220 CM \$79.99 \$49.99</p>	<p>KÜHAUS Deep Tissue Percussion Massage Gun 쿠하우스 딥티슈 전동 마사지기 GRAY \$49.99 \$29.99</p>	<p>Black Paper Axis Baby Cotton Swab 검정 아기 면봉 100 PIECES \$2.99 \$2.19</p>

KOREA'S GREATEST GIFT, MADE FRESH IN AMERICA.

Flavorful Apples, Korean Hot Peppers, Delicious Cabbage... Just Some of the many better ingredients that make our TOBAGI Kimchi the one you crave. Find it exclusively at H Mart.

한국인의 자존심, 토바기 김치! 최고품질의 재료들로 직접 정성껏 리해 만들어 더욱 맛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okim@bostonpremierrealty.com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hwan@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okim@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다예나 김
617.217.2037
daeyeo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김
987.48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나키 박
617.447.0591
knapark@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파크
617.780.702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5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이곤군
617.542.5728
ee@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yoo@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최현민
617.877.0587
hmin@bostonpremierrealty.com



형수 김
617.538.8975
hkim@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주
401.935.3397
elee@bostonpremierrealty.com



리사 송
213.933.8997
lis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5.507.1402
m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은순
781.893.3412
elee@bostonpremierrealty.com



셀리 림
781.690.4939
selby@bostonpremierrealty.com



한세욱
781.996.1214
ha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17.515.1162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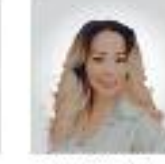
손항환
617.313.3369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레이미아 김
617.852.7485
remya@bostonpremierrealty.com



김기태
617.721.8888
kgae@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617.224.55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메리첸 유
617.935.2713
michelle@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Song Chen
978.277.8430
song@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32.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e
240.449.0117
lu@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wang@bostonpremierrealty.com



Rishi Chopra
617.897.1191
rishi@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64.80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 Wang
617.998.7212
lil@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933.818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e
978.873.6076
michael@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o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5438
jake@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80.0434
isang@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8795
sasha@bostonpremierrealty.com



Anthony Tran
857.208.4059
anthony@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5·18 헌법수룩 갈등 증폭에 커지는 지역 사회 우려

"여야 싸우는 데 이용만 되다가 개헌은 뒷전 될까 걱정"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정치권은 갈등만 표출하자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수인데, 여야가 싸우기만 하다가 자칫 헌법수룩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린 5·18 기념식에서 '오월 정신이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오월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을 언급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 주장이 거둬 나갔지만, 여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맞서는 등 정치권 갈등이 표출됐다.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대통령실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하자, 민주당은 대변인 명의로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다.

호남 겨안기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법 수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해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도 시기·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만 말했다.

헌법 수록을 염원하는 광주 지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사회는 답답한 마음뿐이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여야 합의 없는 헌법수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관계가 좋아도 쉽지 않은 사안을 양측이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싸우는 시점에 나온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조차 힘들다는 시각이 많다.

개헌 이슈가 자칫 여야 정쟁의 도구로만 이용되고 정치적 갈등만 키운 채 헌법 수록은 표류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당도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여당도 설득하고 지역사회에도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헌법 수록에 대해 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지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며 "헌법 수록은 3·1만세운동과 4·19혁명 등과 함께 5·18을 국가의 이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늦지 않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u21@yna.co.kr

'하루 40억대 이체' 김남국, 애초 소명 못 해 의혹 커졌다

업비트서 '이상 거래' 판단해 소명 요구... 결국 FIU 신고, 빚뚱서 업비트 거쳐 클립으로 이체한 경위에도 의문 제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이 지난해 초 '이상 거래'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서 하루에만 40억대 코인이 오간 데 대해 소명을 요구했지만 '석연찮은' 소명 탓에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월31일 빚뚱 전자지갑에서 업비트로 위믹스 코인 62만개를 이체한 뒤 이 중 57만7천여개를 카카오의 전자지갑 클립으로 보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이 개당 7천~8천원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에만 43억~49억원 상당의 코인이 이체된 셈이다.

그는 2월14일에도 빚뚱에서 업비트를 거쳐 클립으로 위믹스 23만여개를 이체했다. 약 16억~18억원 규

모다.

이렇게 빚뚱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클립으로 이동한 위믹스 코인만 80여만개에 이르자 업비트는 이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에서 지난해 1월11일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위믹스 코인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수십 억원어치가 오가는 것도 이상 징후로 읽힌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자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상 거래로 의심될 경우 출금을 제한하고 회원에 자금 출처 등 입출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담당 부서는 이를 검토 후 입출금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업비트가 결국 FIU에 신고한 것으로 미뤄보아 당시 김 의원의 소명에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업비트가 FIU에 이상 거래를 보고한 건 같은 해 3월로 알려져 있다.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는 "업비트는 김 의원의 기존 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코인 자산 규모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이라고 생각

했는데 40억원 상당의 금액을 이체한다고 하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지 않았겠느냐"며 "비트코렌트로 번 돈이라고 소명했는데 (소명 요구에) 자금 출처만 구체적으로 밝혔어도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코인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빚뚱에서 클립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굳이 업비트를 거친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업비트가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출금을 막자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변 대표는 "현금화가 막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클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뭐가 사실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거래소가 요구한 '1차 소명'부터 막히면서 FIU에 신고됐고 FIU 역시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검찰은 세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빚뚱과 업비트,



스마트폰 확인하는 김남국 의원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에서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자금 출처와 자

금 흐름 등을 규명하고 있으며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 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jandi@yna.co.kr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톤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이 광고를 보는 한국연변은행지단의
정부라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보내되었습니다.



한국연변은행지단
Korea First Foundation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권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양주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THE ANGLICAN CHURCH OF THE NAZARENE

하느님에 대하여,
권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식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식사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45 Ash St, Newton MA 02456 / 617-668-2711
stadparish@gmail.com / stb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b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노려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핸디맨 앤디

HANNDYMAN ANDY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p>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p>	<p>세탁소 매매 2Milli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p>
<p>Watertown 연매상 350K</p>	

781.883.5984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MAY 18TH- MAY 25TH, 2023



**키친타올
무료증정**

FREE
PAPER TOWEL



~~REG. \$22.99~~ → **\$13.99**
 6.4 FL OZ X 24 PACKS/BOX

농식품 **베지밀** 검은콩과 16곡 두유
 Dr.Chung's Food **VEGEMIL BLACK BEAN & 16 GRAINS SOY MILK**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37) 한국 경제신문의 투자쇼

재테크 꿀팁, 재테크 일타강사, 재테크 전문가, 국내 최대, 아시아 최고 재테크 박람회, 전문가 65명 구루와 투자 멘토, 등을 언급하며 올 하반기 돈 버는 트렌드와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고 한국에서 경제 신문인 '투자쇼' 기사이다.

"고수, 족집게, 최고, 비법, 꿀팁" 일반 투자자의 안목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투자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투자하면 '고소득 투자자' 가 될 것 같은 마음이다. 그러나 오히려 잘못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 이란 책이 50년 전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맥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의 결론은 "주식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는 가리고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식전문가' 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200만 권이 판매된 투자의 기본 도서

이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 주위에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투자로 돈 벌었다는 친지는 주식 전문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주식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투자자로부터 투자 돈을 모아서 유망한 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펀드 매니저는 속된 말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유망한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투자에 소위 최고의 전문가라는 펀드매니저들의 수익률은 어떠한가? 미국에서 펀드매니저들의 10년 혹은 20년 투자 결과를 검토(Spiva Report)해 보면 펀드 매니저 90%가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Index의 평균 수익률보다 낮다(떨어진다는 것이다).

S&P 500 Index란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된 종목이다. 지난 10년간의 연평균이 12.5%이다. 이것은 투자한 자금이 거의 3배로 불어난 놀라운 수익률이다. 이보다 더 높

은 수익률을 낸 투자 전문가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투자 위험성도 크지 않다. 주식시장 95년 중 어느 10년 평균을 보았을 때 원금보다 적어질 확률은 단 4%에 불과하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은 59.9% 규모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단 1.4%에 불과하다. 규모가 2%도 되지 않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그야말로 '몰빵' 하는 거와 비슷하다.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에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미국 500대 기업은 세계 500대 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뜻은 투자 위험성 역시 그만큼 적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투자 쇼에서 제대로 된 투자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투자 조언을 알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어렵다는 뜻이다. 투자 쇼에 참여한 금융사는 신문사에 참가비를 낼 것이다. 그리고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돈을 벌 것이

다. 신문에서 언급하는 고급 투자 조언 대부분은 현시점에 의한 투자일 수 있다.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조언이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현시점이나 올 하반기를 위한 투자가 아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고려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투자의 현인인 워런 버핏의 유언은 '남기는 유산 90%를 Vanguard S&P 500 Index에 남은 10%는 Total Bond Index 투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반 투자자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14년 연평균 13% 그리고 지난 95년 수익률이 거의 10%이다.

한국에서도 미국 주식시장 S&P 500 Index와 같은 종목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는 투자하기 위한 더욱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제대로 하는 투자로 편안한 은퇴 생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기고 음력 7월5일 사망하였다. 그의 유언에 따라 차기 왕위는 여동생인 김만(金曼)에게로 이어졌다. 그녀가 신라의 세 여왕 중의 한 명인 제51대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 김만, 그녀는 우리나라 역사 속의 마지막 여왕이다. 김만은 화랑의 수장인 국선(國仙) 김응림의 딸이다. 응림이 현안왕(顯安王)의 사위로 발탁되면서 그를 이어 제48대 경문왕(景文王)이 되었다. 김만의 어머니는 문의왕후 또는 차비인(車比仁)이라는 기록이 전한다. 경문왕의 왕비 문의와 차비(車比)는 모두 제47대 현안왕(顯安王)의 딸이다. 현안왕은 '비록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전례가 있지만 본받을 만하지 않다' 고 하면서 왕위를 딸에게 넘기 보다는 사위에게로 잇기를 원하였다. 하지만 현안왕의 의지와는 다르게 경문왕 김응림에게 두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짧은 치세를 거치면서 그간 왕통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장남 김정이 제49대 현안왕으로 즉위했지만 24세 무렵에 사망하였다. 현안왕은 적자가 없었고, 서자 김요가 있었지만 채 2살이 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차기는 동생 김황이 제50대 정강왕(正康王)으로 즉위했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병사하였다. 정강왕은 병석에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전례를 참고하여 누이동생 김만에게로 왕위를 잇게 하라는 유지를 남겼다. 그래서 김만이 887년 7월에 진성여왕으로 즉위하였다. 한편 경문왕의 장녀이자 김만의 언니인 김명(金明)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하지만 구체적인 행적은 찾을 수 없다.

제27대 선덕여왕과 제51대 진성여왕의 즉위 배경을 비교해 보면 물론 상이한 면이 많지만 공통점도 많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기를 이을 왕족이 '멸족' 되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신라는 일찍이 골품(骨品)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친혼은 물론 심지어 남매가 결혼하면서 성골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제26대 진평왕(眞平王)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그는 사위인 용수(龍壽)·용춘(龍春)에게로 왕통을 이으려고도 하였지만 결국 딸 덕만(德曼)에게로 이어졌다. 그녀가 선덕여왕이다. 한편 용수와 용춘도 진지왕(眞智王)의 아들로 성골이었지만, 진지왕이 폐위되면서 아마도 족강이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용수의 아들인 김춘추의 신분이 진골인 것으로 보아 용수와 용춘은 진골임이 틀림없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제29대 무열왕이 되었는데 그가 첫 진골신분의 왕이다.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부터 제36대 혜공왕(惠恭王)까지는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혜공왕 재위시 일어난 '김지정의 난' 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혜공왕은 시해되었고, 왕의 후손도 없었다. 그래서 차기 왕은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김양상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선덕왕이다. 분명한 것은 혜공왕이 시해가 되었는데, 삼국사기에는 난의 과정에서 살해당했다고만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난은 김지정이 일으켰는데 혜공왕은 김양상, 김경신에 의해서 처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혜공왕을 마지막으로 무열왕의 직계 왕통은 단절되었다. 차기는 화랑의 19세 풍월주(風月主)를 역임한 김흠순(金愼遵)의 후손인 김양상(金良相)이 제37대 왕위에 올랐고, 가야의 후손 김양상 또한 후손이 없

이 사망하자, 국민들은 김주원(金周元)의 차남 김인문의 7세손(을 왕으로 옹립했고, 김주원은 즉위를 하려고 왕궁으로 향했지만 홍수로 불어난 알천(闕川)(현 북한, '가로막는 내' 라는 뜻인데 김주원의 왕위를 가로막고 말았다) 을 건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궁궐에 있던 상대등 김경신(金敬新)이 용상을 차지하였다. 그가 제38대 원성왕(元成王)이다. 그로부터 제52대 효공왕(孝恭王)까지는 모두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에 있었다. 제47대 현안왕이 아들이 없어서 김응림을 사위로 삼아 제48대 경문왕(景文王)이 되었지만, 김응림 역시 원성왕의 증손자인 제43대 희강왕(熙康王) 김제룡(金濟龍)의 손자이다. 경문왕을 이어서 장남 김정이 현안왕(顯安王)에 올랐고, 다음은 왕의 서자 김요(金堯)가 너무 어려서 왕의 동생인 김황(金晃)이 정강왕(正康王)으로 즉위했다가 1년 후에 병사하자 여동생 김만이 진성여왕(眞成王)으로 즉위하였다. 그녀도 후사없이 897년 짧은 나이에 병사하였다(866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왕위는 제49대 현안왕(顯安王)의 서자인 김요(金堯)에게로 갔고, 효공왕 김요 역시 912년 25세 무렵에 후사없이 죽었다. 왕족이 완전히 씨가 말라가고 있었고, 이미 한반도는 후삼국시대에 돌입하고 있었다. 차기 왕위는 현안왕의 사위인 박경희(朴敬熙)에게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www.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최

2023 뉴잉글랜드 어린이 사생대회

2023 NE Drawing Contest



❖ 참가 신청 링크: <https://forms.gle/Y7HfjM85J2RocgwDA> 또는 각 학교 교장 선생님께 문의~!

- 🕒 날짜/Date: 5월 27일 토요일/May 27(Sat)
- 🕒 신청마감일: 5월 20일까지(마감 후 등록 \$15)
- 🕒 시간/Time: 오후 2시~4시 30분

⇒ 1시부터는 강당에서 글짓기 대회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 🕒 접수/Registration: 1시 30분~2시
- 📍 Place: **Oak Hill park** &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강당
- 📍 Address: 130 Wheeler Rd., Newton, MA
- 👤 참가 대상: Pre~12학년
- 🎨 참가 부문: **크레용/크레파스 & 수채화 부문**
- 💰 참가비: \$10/1인
- 🏆 시상: 학년별 대상, 금-은-동상, 참가상
트로피와 상장 & 상품 예정
- 📋 준비물: 크레용/크레파스, 그림물감 등 그릴 재료
의자 또는 돛자리 및 종이를 받칠 판/이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후원: 보스턴 총영사관, NE한국학교협의회 이사회, 보스톤코리아

최강 빌런에 맞선 자동차액션...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거대한 구형 폭탄이 이탈리아 수도 로마 도심의 비탈을 타고 고속으로 구른다. 육중한 폭탄에 부딪힌 버스가 산산이 부서진다.

자동차 한 대가 무모하게도 폭탄을 차체로 막아 세우려고 따라잡는다. 차에 탄 사람은 전설의 레이스 '돔'(빈 디젤)이다.

카 체이싱 액션 영화의 대명사와 같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 열번째 작품이 나왔다. 17일 국내 개봉한 루이스 리터러 감독의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Ride or Die)'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일부 등장인물의 변화가 있었지만, '돔'과 그의 아내 '테티'(미셸 로드리게스), 동생 '미아'(조다나 브루스터), 동료 '한'(성강) 등 '돔 패밀리'의 핵심 멤버는 그대로다. 그동안 이 시리즈를 계속 봐온 관객이 새 작품의 도입부에 돔 패밀리가 한자리에 모인 장면을 본다면 옛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뉴 페이스'도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분노의 질주' 시리즈 최강의 빌런으로 등장한 '단테'(제이슨 모모아)일 것이다.

단테는 돔 패밀리가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2011)에서 몰락시킨 브라질 마약왕의 아들이다.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한 그가 돔 패밀리에 마수를 뻗는다.

말투와 몸짓에서 희극적 요소를 풍기는 단테는 '배트맨' 시리즈의 빌런 '조커'를 연상케 한다. 사이코패스인 그는 돔에게 고통을 줄 수만 있다면 대도시가 초토화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에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카체이싱 액션이 몇 차례 나오지만, 이 중에서도 로마 도심에서 구형 폭탄을 쫓는 액션은 백미로 꼽을 만하다. 이 액션은 컴퓨터 그래픽(CG)에 의존하지 않고 로케이션 촬영으로 현실감을 극대화했다고 한다.

이번 작품도 로마뿐 아니라 영국 런던, 포르투갈 리스본 등 세계 곳곳을 무대로 액션을 벌인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최강

의 무기는 역시 자동차다. 장갑차, 헬리콥터, 전투기도 자동차를 못 이긴다.

최고의 드라이버인 돔이 이번에도 도로를 질주하며 헬리콥터와 사투를 벌인다.

이 작품은 돔의 마지막 질주라고 하지만, 막상 엔딩은 마지막 질주의 이야기가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을 암시한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무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나아가 우주로 확대됐다. 동시에 영화의 주제는 '가족'으로 응축됐다.

"늘 가족을 생각하며 산다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라는 극중 대사가 잘 말해준다.

첫 작품부터 중심에 있었던 빈디젤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반항아의 기운이 넘치던 그도 50대가 된 지금은 눈매가 부드러워졌다.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가장의 역할에 잘 맞는 얼굴이 됐다. 그는 이번에 주연 배우뿐 아니라 제작자로 참여했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에서도 멋들어진 자동차가 등장할 때 나오는 힙합과 메탈 중심의 배경음악은 상대를 위협하는 듯한 엔진 소리와 어우러지며 곧 펼쳐질 질주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특히 OST(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참여해 화제가 됐다. 지민은 미국 힙합 아티스트 코닥 블랙과 NLE

초과가 작업한 이 영화의 주제곡 '엔젤 파트 1'(Angel Pt.1)에 보컬로 참여했다.

'분노의 질주'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자동차 마니아들의 관심은 엔진의 굉음을 내며 맹수처럼 돌진하는 영화 속 자동차에 집중되는데, 이번에 돔은 전기차 '닷지 차저 데이тона 반시 SRT'를 몰았다.

ljglory@yna.co.kr

5월 21일 - 5월 27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p> <p>●운수: 늦춰서 좋은 일이 있고 미루고 늦추다가 낭패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p> <p>●금전: 예상 밖으로 생긴 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뒤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날이 있겠지. 위안하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2, 26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소띠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p> <p>●운수: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면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금전: 어떤 일이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단골이 찾아와 매상을 올려주거나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애정: 아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하늘의 선물로 아기를 받게 됩니다.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3,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범띠 장기적인 안목으로</p> <p>●운수: 모든 일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애정: 내가 상대방에게 솔직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에게 솔직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21, 24일 길일. 23, 26일 주의.</p>
<p>토끼띠 아름답고 밝게 보는</p> <p>●운수: 긴 시간 기다려온 일이나 결말을 짓지 못하고 끌고 오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풀려나갑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 큰돈을 벌 기회가 생깁니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애정: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옆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름답고 밝게 보는 시각이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1, 25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용띠 희망적인 결과를</p> <p>●운수: 자신만의 무대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하겠습니다. ●금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애정: 꼭 이어져야 할 사람과 결국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으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6, 27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뱀띠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p> <p>●운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입니다. ●금전: 두근두근 후회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일에서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가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애정: 소소한 일이라고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아주 소소한 일로 틈이 벌어지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24, 27일 길일. 22, 26일 주의.</p>
<p>말띠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p> <p>●운수: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혼자서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금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때가 왔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나고 수입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겠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3, 25일 길일. 21, 27일 주의.</p>	<p>양띠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p> <p>●운수: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도 받게 되고 좋은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갑니다. ●금전: 부동산과 관련된 일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재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돈이 들어옵니다. ●애정: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처신을 잘해야 이런저런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원숭이띠 가만히 있어야</p> <p>●운수: 사소한 행동 하나가 가져다주는 파장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언행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금전: 고집을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뭔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빨리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 부부 사이의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게 지켜보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설 일이 아니니 가족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7일 길일. 21, 23일 주의.</p>
<p>닭띠 전화위복의 계기로</p> <p>●운수: 어렵게 보이던 상황도 자신의 의지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금전: 당장은 좋아 보이고 편한 길처럼 생각되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애정: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서로 타협해야 해결책도 생깁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3, 26일 길일. 21, 24일 주의.</p>	<p>개띠 깨끗하게 정리해야</p> <p>●운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금전: 당장은 욕심이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애정: 오래된 가구를 버리고 방을 깨끗하게 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5일 주의.</p>	<p>돼지띠 다시 한번 점검해야</p> <p>●운수: 자기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금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머릿속으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착 하거나 이루는 일도 없이 금방 시간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애정: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5일 길일. 23, 26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심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택배기사' 김우빈 "눈만 드러낸 연기...진심은 통하리라 믿었죠"

(서울=연합뉴스) 오명연 기자 =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얼굴의 반을 가린 채 연기해야 했어요. 마음이 진심이라면 눈빛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죠."

비인두암으로 투병했던 배우 김우빈이 첫 넷플릭스 시리즈 '택배기사'에서 녹슬지 않은 연기력을 입증해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시원한 액션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들고, 얼굴의 반을 가린 채 눈썹과 눈빛만으로 슬픔, 분노, 결의 등 다양한 감정을 설득력있게 표현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김우빈은 "마스크 쓰고 연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마음이 진심이면 마스크를 써도 감정이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더 집중했다"며 "저는 그렇게 믿지만, 보시는 분들 입장은 또 모르기 때문에 감독님께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계속 확인받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김우빈이 '택배기사'에서 연기한 5-8은 시민들이 우려해보는 전설적인 택배기사다.

드라마는 해성 총동료 99%의 사람이 숨지고 사막으로 변해버린 뒤 40년이 지난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공기가 오염되고 산소가 희박한 탓에 산소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는 사회에서 택배기사는 시민에게 산소와 생필품을 배송하는 영웅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한 난민 출신 '5-8'은 난민의 희망이라 불린다. 무력 집단 '헌터'들이 때로 몰려들어 택배를 지켜내고, 늦는 법 없이 제시간에 시민들에게



게 생필품을 공급한다.

김우빈은 "캐릭터가 멋있어 보였으면 촬영 감독님이 멋지게 찍어주시고, 분장팀이 멋지게 꾸며준 덕분"이라며 "배우인 제가 현장에서 신경 쓴 것은 딱 하나였다. 5-8이 어떤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난민으로 태어난 5-8은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림받고, 고통받으며 살아왔어요. 그에 대한 상처가 깊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김우빈은 이런 캐릭터의 신념이 본인 과도 닮았다고 했다.

그는 "5-8은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인물인데, 저 또한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의무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다만 저는 5-8보다 감정 표현을 훨씬 잘하고, 더 밝고, 장난기도 있는 편"이라며 웃었다.

2008년 서울패션위크에서 모델로 데뷔한 김우빈은 2011년 KBS 드라마 스페셜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강미르 역을 맡으면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드라마 '학교 2013'(2013) '상속자들'(2013), '함부로 애틋하게'(2016), 영화 '스물'(2014), '마스터'(2016)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왔다.

2017년 비인두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위해 휴식을 가졌던 김우빈은 "복귀작인 영화 '외계+인' 시리즈를 13개월 동안 촬영했고, 연말아서 6개월 동안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촬영한 데 이어 곧바로 '택배기사'를 촬영했다"며 "몸에 무리가 될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체력도, 몸 상태도 좋아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저는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건 큰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더 감사함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coup@yna.co.kr

첫 솔로 데뷔한 미주 "아티스트로 반전 매력 보여드릴게요"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가수 미주가 오늘 태어났습니다. 노래가사처럼 모든 게 꿈만 같고 믿기지 않네요."

그룹 러블리즈 출신의 미주가 데뷔 9년 만에 솔로 가수로서 처음 데뷔한다.

17일 첫 싱글 앨범 '무비스타'(Movie Star)를 발매한 미주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신한플레이스퀘어 라이브홀에서 열린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무대에 홀로 서니 부담과 동시에 제가 꿈꾸던 걸 오롯이 펼칠 생각에 설렘도 느껴진다"고 소감을 말했다.

미주는 "어린 시절 TV 속 연예인을 보며 꿈을 꾸던 나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공개된 '무비스타' 무대에서는 반짝이는 플래시 세례에 둘러싸인 스타가 된 미



주의 이야기가 직관적이고 발랄한 안무로 펼쳐졌다.

미주는 "스타가 된 심경을 담은 가사의

내용을 재치 있고 직관적으로 안무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wisefoo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FM 87.7 <신영의 파워인터뷰>

지난해 초겨울부터 '뉴욕 라디오 코리아' FM 87.7 <신영 전도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시작하였다. 어설플 모습으로 시작하였지만, 가끔씩 지나다가 만나는 분들이 알아보시고 잘 듣고 있다고 따뜻한 인사 말을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기도하며 노력해 보겠노라고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나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삶에 지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뉴욕이 '나의 땅끝' 이라고 마음속에 또 새겨 넣으며 오늘을 맞는다.

그리고 6월 초부터 두 번째 방송 '뉴욕 라디오 코리아' FM 87.7 <신영의 파워인터뷰>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음이 많이 설렌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한다. 어느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일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던가.

삶이 버거워져 우울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그 무엇이 삶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7-29)

뉴욕은 발걸음만큼이나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다. 화려한 도시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 사람이 이 모양저 모양으로 북적거리며 살아가지만, 뒤돌아서 자신을 돌아보면 짙은 외로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일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꽤 있다. 우리 개개인을 생각하면 외로운 것이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시시때때로 견

뎀 동력을 잃을 때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처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이 더욱 감사한 날이다.

‘할 일이 있다’ 는 것은 축복이다.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피며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그 마음이라면 이미 행복은 내게 와 있는 것이다.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있어서 안달하며 조금만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한다고 해서 되어진 일들이 맺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는 아주 조금씩 알아간다. 나의 삶의 모양이 색깔이 무늬가 조금씩 보인다.

<신영의 파워인터뷰>를 통해 많은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다. 혹여 소개하고 싶은 곳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라면, 곳이라며 찾아가려고 한다. 특정된 곳이 아니라 교회와 기도원, 목사님,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사역지 그리고 비즈니스에 성공하신 크리스천 분들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다.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어느 곳이 되었던 찾아갈 마음이다. 이 방송을 위해 이 글을 읽는 분들이나 '뉴욕 라디오 코리아' FM 87.7 청취자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신영의 세상스케치>, '뉴욕일보' <신영의 행복스케치>, '뉴욕 라디오 코리아' <신영 전도사의 하늘스케치> 그리고 '뉴욕 라디오 코리아' <신영의 파워인터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나이 예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내 욕심이 아닌 하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며 살려 한다. 가만히 귀 기울여 무슨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멘' 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는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자기사랑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애가 강하다 하던가.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크게 뭐라 할 필요는 없다. 남에게 피해 주는 일이 아니라면 말이다. 제중아서 하는 짓인게라. 그렇다고 내 존재와 나 사이의 관계를 파악코자하는 부당한 행위는 아닐터.

노자의 말이란다. “내 삶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존재의 근원과 나 사이의 (옳바른) 관계이다.” 말은 쉽지 않다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고, 이루기도 어려울지 모른다는 말일게다. 시 한편이다. 자기 사랑이다.

남을 사랑하려고
굳이 애쓰지 말라
...
너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라

그래서 네 삶이 한 그루 나무같이 되게 하라.
너의 그늘 아래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다면
사랑이란 말은 없어도
그걸로 족하고 아름다운 거다.
(정연복, 자기사랑)

자애自愛. 제 몸을 스스로 아끼. 사전적 의미인데, 행동과 품행을 바르게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긴 이런 말도 있다.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한다.'

모두들 좋은 사람들 되시라. Please be a nice man.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7)

작은 신문 기사였다. 100세 장수가 이젠 큰 뉴스거리도 아니다. 그러나 100세에 현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다. 주인공은 의사인데, 이 양반 환자를 본다느 거다. 그가 좌우명으로 내 놓았다. 인상깊은 대목이다. 'I don't restrict myself.' 스스로에게 엄격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관대하

다는 말일게다. 그렇다고 타인에게만 엄격하다는 말은 아닐 것일텐데, 자신을 사랑한다면 타인에게도 사랑을 베풀거라 믿는다. 셀카라 한다더라. 스스로 본인의 모습을 찍는 거다. 구태여 셀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심리적 의미는 곱씹을만하다. 나르시즘이라 고도 하고, 자기에게

The CHURCH on HARVARD HILL



하버드 스퀘어 한인 교회

(HARVARD Square KOREAN CHURCH)



창립 예배에 초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버드 대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달라’고 원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 5:14절에 근거하여 2010년 “하버드 언덕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며,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서 여러 훈련과 연단을 받고 이제 ‘하버드 스퀘어 한인 교회’ 개척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독립 성경 장로 교회로서, 성경에 충실한 강해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와 제자 양성, 평신도 성경 선생 및 자비량 선교사를 양성하는 사역에 집중합니다. 또한 초교파적으로 캠퍼스 선교 사역에 힘써 젊은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여, ‘하버드 스퀘어 한인 교회’를 시작으로 세계 각 대학에 칠천 개의 ‘언덕 위의 교회’ (세상에 빛이 되고 흠모의 대상이 될만한 교회)를 세움으로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딤후 2:4)을 섬기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쓰신 하나님의 손길을 좇아서 한국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세상의 빛이요 복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섬기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제자 양성 사역을 본 받아 복음 사역을 섬기기 원하는 분, 특히 하버드나 캠퍼스 선교에 관심 있거나 부르심이 있는 분, 초대 교회 시절과 같은 가정 교회를 이루어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못하는 시대에 대해서 원통함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저희 개척 예배에 한번 와 보십시오.

일 시 : 2023년 6월 4일 오후 3시

장 소 : 1105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전 화 : 857-259-6242, 857-998-2921

초청인: 권 태윤, 김 원준 교수, 계 모세 목사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서울부민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온몸에 센서 붙이고 골프 스윙... 의사가 통증 원인 분석



서울부민병원 서경목 스포츠재활센터장/부민병원 대표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스포츠 재활의학과 서경목 센터장의 도움을 받아 서울부민병원 골프클리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땡!’ 골퍼의 경쾌한 타구 음과 함께 화면에 여러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입력된다. 위·가운데·아래 총 3개 화면에서는 전체적인 자세·움직임과 움직임별로 변하는 팔·다리·손목·발목 각도, 무게 중심, 스윙 속도·궤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 분석·상담을 거치고 나면 비로소 여러 궁금증이 풀린다. 골프를 하고 나면 항상 특정 부위만 아팠던 이유, 백스윙 동작이 엉성했던 원인, 부상 위험이 있는 부위, 교정이 필요한 자세·움직임 등이다. 모든 과정은 병원 내 스포츠재활센터에서 골프 의학 전문가가 지도하에 이뤄진다.

최신 장비 활용, 3D 스윙 분석부터 궤적·중심 이동 파악까지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스포츠재활센터에 들어서면 한 칸에 위치한 골프클리닉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방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스크린 속 골프장, 종류 별로 진열된 골프채, 수북이 쌓인 골프공 등은 스크린골프장을 연상케 했다. ‘병원 안 스크린골프장’이 생소하게 느껴질 때쯤 골퍼가 온몸에 작은 센서들을 장착한 채 등장했다. 그때야 골퍼 정면에 위치한 대형 화면 3개와 천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비롯한 특수 장비들이 눈에 띄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골프클리닉에는 ▲3D 스윙분석 시스템 ▲궤적 분석 장비 ▲무선 압력 이동 분석 장비 등이 들어서 있다. 모두 전문 훈련시설에서 볼 법한 최신 장비들이다. ‘3D 스윙분석 시스템’은 3D 카메라와 모션 캡처 시스템을 골프에 접목시킨 프로그램으로, 몸과 골프채의 미세한 움직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다. ‘궤적 분석 장비’는 짧은 퍼트부터 드라이브까지 모든 샷의 전체 궤적을 추적·분석하는 동시에, 스윙 후 공이 착지하는 위치를 예측하고 3D 궤적을 지도화해 보여준다. 골퍼 발 밑에 설치된 ‘무선 압력 이동 분석 장비’는 좌우 센서를 통해 스윙할 때 무게 중심, 체중 이동 방향 등을 감지해낸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서울부민병원 서경목 스포츠재활센터장은 “최신 장비를 활용하면 객관적·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작별·부위별 이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클리닉을 이끄는 서 센터장은 국내에 골프 의학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대한골프의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센서가 부착된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발판 위에 서서 스윙을 하면 된다. 센서는 머리와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등은 물론, 골프채와 공에도 장착됐다. 먼저 센서 인식 과정을 거친 뒤 장비에 올라서서 자세를 잡고 스윙을 하면 골퍼 정면에 위치한 위·아래·가운데 3개 화면에 여러 가지 수

치와 자세, 움직임 등이 입력된다. 맨 위 화면에서는 정면·측면에서 촬영한 스윙 장면과 궤적 분석 장비를 통해 공의 궤적, 회전 수·속도, 골프채 이동 방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운데 화면에는 3D로 구현된 스윙 동작과 골반, 어깨, 팔·다리의 움직임, 각도, 회전 속도(골반) 등이 나오며, 아래 화면에는 각 동작별로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표시된다. 평소 닳고 싶던 선수와 자신의 자세를 비교해볼 수 있는 건 덤이다.

40분 정도 검사가 끝나면 전문의와 상담이 진행된다. 검사 결과를 보면서 어떤 동작·자세가 통증을 유발했고 앞으로 어떻게 교정해나갈지, 어떤 운동을 통해 어느 근육을 얼마나 단련해야 할지 등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측정 전·후로 근력·유연성 평가, 근감소증 검사, 근육 염증·손상 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프로는 물론,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보고 싶은 아마추어 골퍼나 주니어 골퍼도 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다. 서경목 센터장은 “X-RAY, 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손상, 염증이 확인되면 곧바로 필요한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검사·치료가 실력과 직결된다고 확신할 순 없지만, 건강상태, 신체 균형을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골프 인구는 급증했지만 골프 부상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교외 골프장이나 연습장에 가보면 몸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주구장창 스윙만 하다 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골퍼를 친 후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서 센터장은 건강하게 오래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실력 향상뿐 아니라 부상 예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후 운동은 물론이며, 운동한 뒤에 나타나는 통증 역시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골프를 오래 친 사람들은 대부분 크고 작은 통증을 겪는다”며 “통증을 무시하고 넘어가면 힘줄 손상·염증, 관절 변형 등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골퍼를 오랜 기간 못 치게 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의 부상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특정 증상이 있다면 의사와 분석·상담을 통해 초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온몸에 센서 붙이고 골프 스윙... 의사가 통증 원인 분석”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2023 Korean Super Premium Rice Event!

한국산 쌀 초특가 대전

MAY 19TH - JUN. 1ST, 2023



Yecheon/Hadong/Shindongjin /Odae/Suhyang Korean Rice

경북 예천 일품쌀/ ~~REG. \$35.99~~ 22 LB
 경남 하동 섬진강쌀/
 전북 신동진 큰들쌀/
 전라북도 고성오대쌀/
 경기 화성 수향미

\$24.99

Icheon Korean Rice 임금님표 이천쌀

~~REG. \$39.99~~ 22 LB

\$29.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인물 화상경은 백제왕의 상징

일본 와카마야현 하시모토시에는 스다하치만으로 불리는 유서 깊은 신사가 있다. 오사카부와 나라현의 접경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서기 503년에 백제 사마왕(斯麻)과 왜국의 오호도 왕자(후일의 게이타이 천황) 사이에 있었던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일본에는 4만여개가 넘는 수많은 하치만 신사가 있다. 여기서 하치만 신은 일본 황실의 종묘신으로 오진 천황을 모시고 있다. 1834년 스다하치만 신사에서 기와를 만들려고 흙을 채취하다 진귀한 청동 거울을 발견했지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신사의 수장고에서 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잠재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1910년 한일합방이 나던해 도쿄 제실 박물관 감사관이던 역사부장이었던 다카하시 겐지(1871-1929) 박사에 의해 처음으로 청동 거울의 면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듬해 "인물 화상경"으로 불리어지는 청동 거울로 일본 국보 2호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 국보 1호는 교토 광릉사에 보관된 "미륵 보살 반가상"으로 신라에서 만든 것이다. 인물 화상경은 거울의 바깥쪽 테두리를 따라가며 48개의 한자로 된 명문이 쓰여져 있는데 백제왕을 비롯한 9명의 인물들이 주조되어 있어 "인물 화상경"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화상경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아래와 같은데 원문에는 백제 무령왕이 아니고 사마왕으로 되어 있으니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

"503년 8월 10일 대왕(백제 사마왕) 시대에 오시사카궁에 있는 오호도 왕자(계체왕)에게 사마왕(무령왕)께서 아우의 장수를 바라시면서 개중비직과 예인 금주리 2인을 파견하여 거울을 보내는바 이 거울은 좋은 구리 쇠 200한으로 만들었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본문의 내용은 백제 사마왕이 동생 오호도 왕자에게 인물 화상경을 하사했다는 사실이 주제인데 예국 사람 금주리라는 장인이 거울을 만들어 왜국땅에서 비직 벼슬을 하고 있는 백제 관리를 시켜 거울을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비직은 가와치에 정착한 백제 도래인으로 동경 제작당시에 왜왕과의 매개 역할을 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백제 사마왕 시절에는 백제, 왜국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활발하여 상주 공관이 있었다고 한다. 화상경을 직접 제작한 장인 예인은 삼한시절에 강원도 영서, 경기도 북부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는 삼한, 예, 맥족들을 모두 합쳐 우리 한민족으로 통칭하였다.

"무령왕과 게이타이 천황"

무령왕과 게이타이 천황의 치세 중에는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일본서기에 실려 있는데 이들 두사람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한일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물 화상경은 서기 503년 사마왕이 47세때 그의 동

생 오호도 왕자에게 하사했으며 4년후에는 그가 왜국의 26대 천황으로 즉위하게 된다. 그의 나이 22세때의 일이다. 이 청동 거울은 1500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귀한 명물로 보전되어 왔으며 동경을 만든 인물이 사마왕이라는 것과 백제 장인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거명한 것은 한일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서기 499년에 왜국의 무열(武烈)천황이 즉위하였고 2년뒤 501년에 백제 사마왕(무령왕)이 40세를 넘기는 중년에 즉위하였는데 두 사람에 대한 성가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무열천황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폭군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이로인해 양국간의 밀월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만 무열천황의 확정중에도 게이타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마왕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무령왕 즉위 원년인 501년 왜국의 객관에 파견되어 있던 백제 왕족 "의대량"이 원인 모르게 사망했는데 그의 죽음이 무열천황에 의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이에 무령왕은 "마나"라는 또다른 왕족을 왜국에 파견하였고, 그다음에는 자신의 3째 아들 "사야"를 파견했으니 이같은 움직임은 오호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503년에 무령왕이 오호도에게 "인물 화상경"을 전해준 저의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절한 선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507년 12월 아주 갑자기 일본서기에 무열천황이 열성궁에서 급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가 어찌되어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문제는 대를 이어갈 후손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천황이 되겠다고 나서지 못하였다. 그래서 게이타이(오호도)가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는 개조(開祖)가 된 것이다. 새 왕조는 게이타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령왕의 부친 곤지왕의 생애를 다룬 역사 대규 소설 "백제왕 곤지왕"에서 한일 고대사 연구자이자 작가인 정재수 선생이 무령왕릉과 인물 화상경에 관련한 흥미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무령왕릉 유물중에 목관 파편이 있었는데 나무의 재질은 금송(金松)이었다. 그런데 이 금송은 한반도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목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년생이 필요하였다. 다년생 나무는 통상 군락지에 서식한다. 대표적인 금송 군락지는 와카야마현 고야산(高野山)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마왕의 목관은 일본에서 백제로 가져와 제작한 것이다. 고야산은 인물 화상경이 발견된 스다하치만 신사의 남쪽에 위치한다. 이곳이 바로 사마왕의 아버지 곤지왕이 살던 곳이었다. 결론적으로 사마왕과 야마토 왕실의 친



백제 무령왕이 일본 게이타이 천황에게 보내는 인물화상경(일본 국보)



백제 25대 사마왕(무령왕) 묘지석



무령왕과 왕비의 금제 장식, 왼쪽이 왕의 금관



무령왕 목관, 재료는 일본의 금송



와카야마 현 스다하치만 신사

연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스다하치만 신사의 화상경과 사마왕의 목관이 이를 증명하는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 또한 이 두 유물은 동성왕과 사마왕 두 형제가 일본에서 태어나 함께 성장한 내용과 사마왕이 야마토 왕실과 동독한 우의를 다진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기 815년에 간무천황의 왕자가 일본 고대 황족과 귀족들의 계보가 적혀있는 신찬성씨록이라는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 책에서 게이타이 천황의 손자인 30대 천황 비타츠가대 원진인이라는 백제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타츠가 백제 사람이라면 그의 조부 게이타이 천황도 백제 사람이 아니겠는가? 비타츠의 손자는 34대 조메이 천황으로 이어지는데 백제공과 백제 사찰을 만들었고 장례를 백제대빈에서 치루었다고 한다. 곤지왕의 가와찌 왕조를 연구한 역사학자 가도와끼 데이지 교

수는 5세기말 하비키노시의 이사가와 골짜기에 곤지왕이라는 백제 왕족이 5명의 아들과 종족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면서 이들이 한일 역사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그의 아들중 2명의 아들이 24대 동성왕과 25대 무령왕이 된 것이다.

일본에는 오구짜키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즉, 천황과 귀족, 황족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신들의 본관에 묻힌다는 풍습을 말한다. 하비키노시 태자정 무덤군에는 게이타이 천황의 손자 비타츠 천황, 성덕태자의 부친 요메이 천황, 비타츠의 부인 스이코 천황, 효덕천황이 묻혀 있고 성덕태자를 모신 상태자역이 바로 이곳에 있다. 그외에 오쓰황자와 수많은 소가씨 일가의 묘가 이곳에 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이곳에 곤지왕 신사가 생겨나면서 이들 왕족들의 무덤군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HOME RENOVATION
NAMU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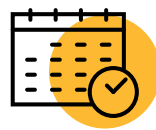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2



3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